朝鮮日報

今日四面

購讀料 ... 廣告料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 朝鮮日報社

社說

日本勞働組合法案

一

日本加藤政府는 勞働組合法을筆頭로한諸種의勞働에關한立法案을 內務省社會局과 行政調査會로하여금 制定케하야來議會에提出하라는意向인데 勞働組合法案은 이미脫稿되야參與會議外지를通過發表케되엿다 그러나 이原案이來五十一議會를通過하지아니하면 法案으로成立되지못할것이니 지난十八日에世間에 公布된勞働組合法은確定案이아니라 아즉 未成品으로잇는것이事實이다 다시말하면原案이그대로通過實施되게될는지 或은 그骨子에觸하는大修正을被하고야 비로소實施되게될는지 이것은 모두來頭問題이니 後期를期하야評論批評하려니와 數年來日本에勞働運動이자못急進的으로發達된結果 勞働立法의必要가切迫하야 爲政者로서는 當然히制定치아니키不能할것도事實이지만은 普選의實施期를압헤두고解散風이低迴하는時期인外닭에政界的色彩가또한濃厚하다할것이다

二

그런데 現下日本의社會事情으로보면 勞働에關한立法問題는 그要否를論할時代가아니다 오래동안懸案으로서 再復討議되야왓슬뿐아니라 몰이어그時期의느짐을늣기는터이니 이제그實施의必要를論하는것은 無用의定論이다 그럼으로吾人은短刀直入的으로 同法案內容과 完實을吟味檢討코자한다 그런데 同法案은 全文二十六條로서 社會局에서 標榜하는바와가티 自由主義에 立脚한것이라한다 參與會議에서 多少의修正이잇서 指導主義的色彩가 몰드럿다하나그것은微微한部分에不過한바이다 同法案中主要事項이라할것은 第一條에서「勞働組合은 勞働條件의維持改善을目的으로한勞働者十人以上의團體又는聯合을謂함」이라고定義하고 第二條에서屆出主義로할것을規定하고 第十一條에서 雇傭者及代理人이 自己의雇入勞働者가 勞働組合員이라고解雇하거나 組合의加入、脫退로써 雇傭條件으로함을 禁止할뿐더러 勞働者가 組合員이라고 資本家에게不當한壓迫을被하거나 職業을失치안토록保障하엿다 그리고 十二條에서는 團體交涉權을認定하얏다

三

만일 原案에根本的修正이업시通過된다면 當局者의自揚하는바와如히 歐米의그것에比하야遜色이업다함에 一理를肯定할것이오 初産으로서는急進的인觀도업지안타 그러나 歐米의資本主義는 階段的發達을한만큼 勞働組合도階段的發達을遂하엿거니와 日本은資本主義의 發達過程이 急遽한만큼勞働運動도 또한急進的發展을示하게된것이니 한갓歷史的觀念에醒覺하야 原始的組合法과同日에論하야 急進的이니 무엇이니하는것은 實際에迂濶한者의斷法에不過할것이다 그리고團體交涉權을認定하는以上에는當然히雇傭契約上에出現될損害關係를 言及지아니함은 不備의顯著한點인가한다

■ 그런데 組合法自體가如何히完備하다드래도 組合의活動과組合員의自由行動을 圈附할諸種의法律이 그대로그威力을保持케하는것은 組合法에依한組合의發達이完成되지못하고몰이 一層의威脅을바들것이다 何故오하면 第一條의規定에依하면 共同利益의保護를認한것이다 그러나無産階級의當然한權能으로 組合의目的을삼엇스니 組合員의政治運動을明白히否認한것이다 그러나 無産階級의政治運動을 根本的으로威脅하고잇는治安維持法과 治安警察法이 그대로잇다면 組合員의政治行動은 반드시 組合의目的과相符함에不拘하고 法의制裁를 受할念慮가多하다 더욱 私有財產制度의改革을前提로한 綱領中에 그에使用하는金品의 受授를 禁하는것은看過치못할點이다 政治運動을 行함에그資金을組合員에게徵收하는것은 英國의好實例어니와 組合의資金을調達하야 政治運動에使用케한結果는 意外에 治安法의制裁를受할危險性이附隨치아니하리라고 保證하기不能할것이다 要컨대勞働組合法의實施는日本勞働階級의團結的發達에잇서 有力한도움이될것은事實이다 그러나이것을阻止하는諸種의惡法이存在하는以上 任意의發達을遂치못할것이明白한바이니日本勞働階級은모름직이 이 矛盾된兩極性에善하도록努力함이잇슬진저

廣東總罷市形勢

(香港二十二日發) 廣東總商會外 三團體는 廣東政府에對하야 輸出入許可書의 撤廢를請願하얏는데만일此가容認되지못하면 總罷市를決行할 貌樣이더라

商務印書館 職工의罷業

(上海二十二日發) 上海第一의書店商務印書館의印刷及製本職工全部가罷業하얏는데理由는 給料의增額、待遇의改善이오郵便物罷業에刺戟된것이라더라

二院制度 採用決定

(北京二十二日發) 國憲起草委員會는二十二日立法機關二院制度採用으로決定하얏더라

廣東의反英的命令 이는國際法에違反

英外相쳄바렌氏의陳述

(나우엔二十二日發) 英國外相『쳄바렌』氏는廣東政府에對하야共同動作을取하기爲하야關係列國과交涉中이오또同氏는廣東政府가過般發表한反英的命令은國際法에違反되고또英國貿易뿐만아니라彼等自國의貿易外지도危殆히하는것이라述하엿더라

上海事件交涉은 今週中期必開始?

(北京二十二日發) 上海事件交涉은司法調査如何에不關하고開始하기로意見을모아中國側의意嚮에依하야今週中에開始할터이더라

事件解決促進提議

(東京電) 二十一日北京公使團會議에서芳澤公使는上海事件解決의促進을提議하고此에關한意見交換을하얏는데或은交涉의新局面을열어北京政府와交涉開始를하게되리라더라

關稅會議準備進捗 開會式은十一月一日로

(北京二十二日發) 外交總長은二十一日外交部內各部에對하야關稅會議開催에必要한會場의選定과設備及外國代表委員接待等法並會議에提出又는發表할材料文書作製等一切의準備를命하얏스며 中國側委員特히委員長人選問題는今月外지의形勢로는停滯狀態인데委員의數는最近의廟議에서十二名으로하기로大略決定한바委員長으로囑目되는沈外交總長、顔惠慶兩氏는모다固辭하는中임으로不得已하면委員長을選치안코合議制로하고會議에는爲主히外交、財政에經驗잇는者五名으로하야금直接으로其衝에當케하고其他七名에게는內部的事務를擔當케하자는議도잇고開會式은十一月一日로擧行되리라더라

中國委員은 爲先七名으로

(北京二十二日發) 關稅交通總長、農商次長、莫德惠、稅務督辦蔡廷幹、顔惠慶、王正廷의七名으로決定하얏는데또增加할豫定이더라

會議參加範圍擴張 關係外諸國도參加키로

(北京電) 中國關稅特別會議에八個國以外의國에서도條約第八條에依하야招請할수잇다는데 對하야中國과貿易關係를가진西班牙國은中國政府의希望에依하야米國政府로부터會議에參加하도록請狀을發하얏다 그리고北歐諸國의丁抹、瑞典、諾威에도招請狀을發하게될터이라더라

酒類密輸取締 九月一日부터大大的開始

(華盛頓二十三日發) 最近組織을一新한亞米利加合衆國의酒類密輸密賣取締業官陸總員一萬人은九月一日부터大大的取締運動을開始하고酒類의密輸密賣를撲滅할터이더라

英佛債權整理案과 兩國藏相의主張相違點

(巴里二十一日發) 佛國財政長官『카이요』氏는二十四日倫敦에서英國藏相『차칠』氏와英國이聯合國에對한債權整理의件에關하야會議할터인데英國의主張하는바는 一、英國이戰爭中聯合國에貸付한金額에關하여서는此聯合國으로하여금年賦額約三千七百磅式六十個年賦로償還식히고 二、英國이聯合國代로米國에支拂한六千萬磅을二十個年에分割한即三百萬磅式을却하야 이라云함에在한다 此에對하야 『카이요』氏는 一、英國이先貸할分은百萬磅으로하고六十個年賦로하고 二、『또―스』案에依한英國의바들것은二千萬磅이아니라千五百萬磅으로豫定할것이라 云함에依하야佛國은年年英國에支拂할金額을二百萬磅으로減하고자하더라

佛銀罷業益益擴大 郵便從業員의同情罷業

(巴里二十二日發) 佛國銀行從業員罷業은益益擴大되는中인바近郊郵便從業員도同情罷業을開始할지라政府側에서는此嚴重取締의旨를布告하얏스나何等의効果도업섯고更히二十二日『리온』의郵便從業員等은各銀行으로부터의商業手形集金取扱을繼續拒絶하기로決하얏더라

對獨回答 二十四日手交

(쎌도르二十一日發) 駐獨佛蘭西大使는保障條約에關한佛蘭西의對獨回答을二十四日手交할旨로本國政府로부터의訓令에接하얏더라

佛領總督 歸佛中狙擊

(巴里二十二日發) 佛領『말로쉬니』島에서온報告에依하면同島總督『리샤노로』氏가休暇中歸佛코자乘船하랴할時에同船內에隱伏하얏든暗殺者가總督에게向하야拳銃을發射하야總督은四個所의重傷을負하고直시病院에移케한바經過는良好하며暗殺者는即席에서捕縛되얏더라

시리아戰續報 協定無事進行中

(쎌도르二十一日發) 『시리아』로부터의最近報道를綜合하면、『도루―스』族과의協定은無事히進行하는中인듯하더라

百餘名의溺死 渡船顚覆으로

(캄캇타二十二日發) 『캄캇타』附近『메우나』近海에서暴風으로渡船이顚覆되야百名이溺死하얏더라

婦人參政法案 印度議會서可決

(캄캇타十九日發) 『벵고루』州參事會는本日婦人에게選擧權을附與하자는法案을可決하얏더라

關稅會議와 列國의態度

(東京電) 日本政府는近近催할關稅特別會議에對하야對中國債務整理의提案을決定하얏는데此에就하야는아즉列國과의共同提議에外國의同意를得치안코日外松平大使를通하야英國은『쳄바렌』外相、米國은『켈록』長官에게又佛國에代理大使에게交涉을開始하얏슨즉利害가相異한列國이會議를目前에하고對中國債務를中心으로一步調의一致를期함이可能할與否와對中國債務에對한態度와此의步調가注目되더라

桑、布大飛 米海軍의計劃

(東京電) 米國海軍에서는來九月二日桑港으로부터布哇二千百浬의無着陸飛行을行하기로한바參加飛行機는『모스엔젤스』와『따구라스』製作所特製의『피엔』號型三機이며『롯저―스』少佐指揮下에『잔데고』로부터桑港으로回航하야桑港에서飛行할準備를整頓하는一方으로太平洋上에는航空母艦『랑그레』號外驅逐艦九隻으로써百浬의距離로配置하고各艦에는其他의『파트』、給與金을用意하야何時에던지應急補充을하기로한바如何間二十四時間에桑港으로부터布哇를향하야飛行하다할當日은非常을呈하리라더라

合同非合同의拮抗 政本黨의黨內分野

◇雙方勢力相當、前途如何解決

(東京電) 政友本黨의中橋德五郎氏一派의政本合同急進論者의運動은漸次熱을加하야到底히床次總裁를中心으로하는自重論者의自重論을드를뜻도아니하며中橋氏는過般來政友會의鳩山、留月、島田、武藤、三土氏等을訪問하고急進的合同計劃을施行하며又는中橋一派의吉植氏等도各、此目的下에活躍하는中으로此를計劃한自重派의幹部는放置할수업다하야二十一日密議가되야遂히非合同의便論으로合同派에게一次忠告하여斷然히反省치아니할時는斷乎한處置를取한다하엿스나中橋一派와의聯盟은이미四十名以上에及하얏슴으로此를斷乎한處置를한다하면本黨은結局破綻을하게되엇고例의四人派의援助도일케될것슴으로果然自重派가斷乎한處置를取할수잇슬가엽會가兩派今後의動靜은매우注目할만하더라

合同派의讓步 黨의時機를待키로

(東京電) 政友本黨合同急進派의策動에對하야自重派幹部는昨日의密議에基하야合同派를歷訪하고論議하얏는데엇지하얏든지合同을計劃한것은元來本黨을爲한것으로서決코私利私欲을爲한것은아니다從今後、田中兩領袖와서로相議하야黨의方針이決定된以上自己들로도決코黨議를無視하는것은아니다하며特히合同은事態重大하야自己의負된以上決코黨議에反하는行動을取하지안는다고釋明하얏슴으로즉우리合同에躍起되엇든例의大木伯等의四人도時期를待하는것이조타는意見을가젓더라

政友少壯派의蹶起 田中總裁는引退하라

合同停頓은罪在總裁

(東京電) 政友會에서는必死의努力으로多額議員選擧에大勝을制할計劃을獨立旗飛하랴할際에肝腎인田中總裁는鄉里에歸省하얏고幹部大多數도避暑한지라一部莊派는此를노고憤慨하야如斯緊急한境遇에總裁인者가悠悠히歸省하는것은何事이냐고總裁는小泉東太郎과如한陰謀的人物을重視하야幹務를讓케한中特히政本合同의停頓等은總裁의罪이라茲에總裁는當然引退하고政本合同을實現케할것이라非難攻擊하는中이더라

研、交兩派 畢竟龜裂

衆院分離의불똥

(東京電) 從來貴族院의研究會와交友俱樂部와는不可分離의親密한關係가잇는것은世上周知하는바이다그런데今回研究會가政務官問題의交涉으로現著히憲政會와接近하야젓슴으로政本兩派의提携를策動하는者도이서서研、交兩派의親密關係에非常한危機를生하얏다然則交友俱樂部가全然反對의態度로出하겟다나、本兩派의色彩가濃厚한것은事實이나반드시兩黨系의俱樂部가政、本兩派를支持하여야하는것은아니나 研究會와對하야行動을取하는것은아니라云하나如何間兩派의秘密關係가잇는것은事實이더라

議會議事 放送決定은 米國實例調査後

中村衆院書記官長談

(東京電) 今回東京放送局으로부터議會開會中、會의議事를放送코자하는申請이잇섯는데此事는時代의要求上當然한一問題가될것이라思하야目下各國에서議會의議事를放送하는것은米國뿐이나放送하는것도一般의議事를放送하는것은如何이던지國務大臣의施政方針演說가튼것은放送하게하자는希望이잇는듯한바院內의言論은絶對保證이잇서서院外에對하야何等自由를拘束치아니하는特點이잇슴으로此를放送할境遇에如何한關係가잇슬는지與否를愼重히攻究치아니하면不可하다하야幸히萬國議院同盟會議에出席하얏든書記官이行케되얏슴으로米國의實際를調査하며從하야各派交涉會에도諮하야可及的放送局의希望에副케할생각이라云云

陸軍行政에 新生面開拓

(東京電) 宇垣陸相은來五十一議會의協贊을求한後에陸軍局新設計劃을實行할模樣인데此外에同時에省內의各局課를廢合하야陸軍行政에新生面을開拓하고자하는決心을가젓더라

政府有米賣却 一萬五十名

(東京電) 來二十五日東京에서政府所有日本米(加州米二千石을含함)一萬五千石을賣却한다더라

京穀總市의前途 結局은解散乃已?

京城穀物市場의不振에就하야組合員中의某有力者는말하되組合員의實力이上下가너무隔絶하야京穀組合은實로維持가困難하고組合의徵收도至難에近한바市場이繁昌하기는望키어려우나만일現狀이繼續되면組合은結局解散할수잇스나組合自體로는痛痒이別無하나外部에對하야는種種의惡影響이잇슬것이다

殖銀通常總會 卄三日同樓에서

殖産銀行第十四回通常株主總會는二十三日午前十時半부터同行樓上에서開催하고百瀨監事로부터監査結果의正確한旨를述하고有賀頭取의重任인辭가잇슨後直히議事에入하야有賀議長으로부터(一)營業報告財產目錄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承認의件(二)利益金分配案의件을滿場一致로可決하고理事補選의件에入하야渡邊氏로부터議長一任을하얏스나對하야若松、古城氏로부터常任監事設置의希望을述하야暗히現監事의不信을諷示하얏스나議長은矢鍋永三郎、中村兩氏를指名하고更히常任監事는保留로決定하고深尾前理事의慰勞金은議長에一任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얏더라

鮮銀券膨脹 俸給支拂關係로

朝鮮銀行券의發行高는月初以來漸減하야中旬에至하야는八千萬圓臺를割하고限外도消滅함에至하얏던바二十日以來膨脹하야二十一日은八千二百八十八萬八千圓에達하야前日보다二百二十五萬圓의膨脹을示하얏는데右는諸官廳會社團體의俸給支拂關係로因한것으로每月俸給日前後는約三百萬圓의膨脹을示하는것이더라

人事消息

▲金燦氏(四團體合同會執行委員)黃海少年大會에參觀코저二十八日向載寧向發
▲金環敏氏(同委員)同上
▲許貞淑氏(女性同友會執行委員)同上
▲金東赫氏 八月二十日載寧郡自邸에서遭內艱

八面鋒

○昨夜南門通에서、朝、日人間에大格鬪가잇섯다、朝鮮人은、生命危篤、日本人은重傷

○和田某라는、日本人이、朴某라는、朝鮮人을、몹저、두다렷다

○忠北槐山郡의今村事件을爲始하야、近來더욱頻繁、島人들의蠻行을、傳하니

○그들의눈에는、朝鮮사람의목숨은、파리목숨이나、마찬가지로、보이는지?

○中國서는 教育總長外지 外交舞臺에나서서 上海會審衙門을 撤廢하라고 英國名士들에게 通電하엿다

○外交總長한사람만、가시고는아니되겟지? 四億萬人의總出動할때가왓나보다!

哭三諳 (四)

民世學人

蜀國興亡이어제오늘아니어늘寂寞空山에 지금히피나게울어愁心人으로斷腸의怨哀를 곳는것은 錦南鄭忠信이 杜鵑의哭에感傷한바이다 興亡이有數하니滿月臺도秋草로다 夕陽에지나는손이눈물에겨워하는것은耘谷元天錫이 松京의廢墟를지나牧笛에부쳐버린五百年王業을哭함이다 鐵嶺굽은고개자고가는구름을잡거리어 孤臣感淚로쏘너게신九重宮闕에부치기를願한臣의心事를 哭함이다 간밤에울든여울슬피울어지내거다 이제야생각하니 님우러보내도다 져물이거실러흘르거나도울어보내리라 김흔말길흔골울어가는시내물에 權漏元氏가多情을노래함이다 今古累千年에失意의人과陰厄中의人이 感泣하고

多恨한相思哭

呼哭者 어쩌다汝爭하라? 蘭無香氣鶴無際은 孟東野를哭하는賈島는悽涼한 心事를말함이오 晉山白水寡婦哭은申光漢이關山戎馬를作하야 戰死者의家族을悼함이오 哭卵山中은河西金麟厚가仁宗의早夭함을哀痛함이오 年年七月日에痛不復生을詠嘆할것은鬱軻不遇한賢人의怨恨을哭함이오 天下男兒이오 最是人間無限痛하는것은帝罵予를吟한것은 聽軒安裕가蒙古百年의 猜忌를哭함이오 百死之而態見光彩라고 所謂一綫未死之心을 寂遺하는것은浙江의黃宗羲가亡明의遺臣으로新興한 清朝에對한悲憤不平의情을哭하든바이오 奈何以祖宗之天下로 爲犬羊之天下라고 高宗和親의議를 排斥하든것은范仲淹이

南宋의悲運을

哭하든바이오 痛哭分遠鄕見蒼梧之深山이라함은南蓮李太白이 그의失意人의悄曲을娥皇女英의遠別離의 古事에부친바이라 許氏蘭雪軒이二子의殤逝를哭하고 劉令綱이亡夫徐麗氏를祭하매 斷腸의怨哀가木强한男兒도오히려悽然히 下淚할바오 韓退之가 十二郎을祭하며同春宋浚吉이尤庵宋時烈을祭하매 慇痛悽切한 詠思가惻惻히人을逼하는바잇스니 이는愛戀과撫恤과및深厚한交契가常人의範軌를超絶하는바잇슴을因함이다 昔者權蹕이印蔫으로더부러遼東의克復을策할새師ㅣ이미崩挫하엿거늘錦君과暗臣이敵國의恫喝에畏縮하야 主將이刑禍에넘어지고壯圖는再擧가無期한지라 流浪하는一身으로古寺落日에한갓熱淚가滂沱하엿섯다 失敗英雄이

孤獨의悲哀를

哭함이다 崔瑩은이미諸客을잡고麗朝는垂亡의運을促할새王의身勢는江華囚配의途程에올흔게되엇다從者가입고落日이蒼凉한데 戎服으로馬鞭을잡하고日已暮矣로悲泣하니 이는王朝革命의陰謀의犧牲을哭함이다 京痛哭은班猜이滅王衛의遺蹟을冠臣의絶項에넘김이오 一階柔虜亦外猶有山海蒼頭何는大將中에戮殺의慘厄을强制하는王氏諸族이羈卅戮哭하는托缽僧의訣別에酬應함이다 그러나腕未의怨運에는오히려가장血性人의慈哀를도드는者잇다 이몸이죽고죽어一百番고쳐죽어 白骨이塵土되야넉시라도잇고업고 님向한一片丹心이야가실줄이잇스랴 는圃隱鄭夢周의哭이萬古綱常을외치는바이다 牧隱李穡이果然誰害의困厄을치르고 長子種學이無辜히誅戮되매 族生의來謁者를謝하야酒肴로써逍遙山中에들어가 山闡谷深하고 悄然하야 人跡이업는곳에 撫胸大慟하야黃昏에미츠고

哭하야哀切處

에이른後 비로소一大白을擧飮하여曰 心胸大豁矣라고하엿다 識誠中에 나는讒害의 叢中에서 鬱結한大恨을胸臆에深藏하엿다가窮山深谷西顧無人한곳에終日痛哭함으로비로소坦懌함을어드니嗚呼哭할밧게업는心事이오哭할수도업는境遇에잇는千古의失意人은또한絶海窮荒深山長谷의靜悄悄한人世의闘外에가서 任情大哭 血로써淚를繼함이또한一快事ㅣ아니랴? 斷後世生不出于王家라고哀哭한瀋命帝王의運命은禍王에게보지아니하엿느냐? 崔瑩의哭이失敗英雄의哭이냐? 나는그亡國大夫의哭인것을밋는다 牧隱의哭은흥로무엇이라할가? 落魄한國士

亡國의大老의

하소할곳업는悽切한哭일센이다 堯ㅣ殂落하매百姓이如喪考妣三年이라하니 그는所謂其仁如天의巍巍한聖德을讚함이냐? 그러나昊天에呼哭한舜의그것은어쩌한一遭의際가崎嶇함이냐? 或云堯幽囚舜野死라하니 汲冢周書의所傳을 盡信할수업스려니와帝의至情으로 蒼梧山에서 娥皇女英의血淚가 萬古怨哀의 흔적을湘竹에머물럿슴은 어쩌한窮天極地의大慘運으로因함이뇨? 蒼梧山이뭇허지느냐? 湘水가쯘허지느냐? 竹上의눈물은슬어질때가언제이뇨? 嗚呼重重疊疊繼繼生生하는千古怨哭의人을어찌啓人의 一筆로勝記할바이랴 그러나千古有數한呼哭者들을내어씨또한모르다하랴?

鐵筆寫眞 投稿歡迎

『存續할必要업지、畢竟은將來禍根만!』

朝鮮劇場 京城仁寺洞 電話光二〇五番

八月二十二日土曜부터提供
◇米國파라마운트社 喜劇 預期의勝利 全二卷
◇米國파라마운트社 喜劇 意外의强敵 全二卷
◇米國파라마운트社特作品 名花베데이콤푸손孃主演 探偵劇 女探?女賊? 六卷
◇米國파라마운트社大作品 大大活劇 激鬪의天地 全八卷
(豫告) 來週그여히上映 母性愛의眞情! 愛國心과犧牲精神의大로맨스 特別 F.B.D.社超特作大映畫 名畫 亞米利加의魂 全十卷 (一名女性의譽)

優美舘 活特約
八月十九日火曜부터名畫公開
米國에데ー支社作 實寫 週報 全一卷
米國에크엘會社作 喜劇 檢疫所 全一卷
實寫 佛國歐洲戰爭實況 全二卷
米國푸아스트나소날特作品 正喜劇 旅役者 全六卷
米國켄푸송會社作 社會劇 博士의罪 全五卷
來週上映特撰名畫? 인지期待하시오

高等化粧 白玉洗粉 白玉粉 純 高等化粧 煉 圓
세수가루비누
白玉兩煉白粉 이분은、화학작용으로、고귀한약품을배합하야、얼골의、잡티、여드름、죽은깨、희여지고、살깔이부드럽게되는분、참으로미인되는법
白玉洗粉 세수할때에이가루비누로세수하면얼골의잡티、여드름、죽은깨、희여지고、골곱고、희여지는가루비누
△미인되려는 화장품에이두가지는업지못할것、
特約販賣店募集
白玉粉 一號 貳拾五錢 同 二號 貳拾錢
白玉洗粉 大 拾五錢 小 拾錢
製造所 平壤碑九里一四二
朝鮮化學工藝品研究所

秋期園兒增募
募集人員 若干名
募集期日 九月一日까지
幼兒年齡 五歲로七歲까지
京城壽松洞四六 壽松幼稚園

普通學校五六學年講義錄
一、普校四年修業生의唯一한親友
一、普校敎員合位의無二한參考書
(見本要四錢郵券)

高等普通學校講義錄
一、本學期부터改正된敎科書를詳細講述한것
(見本要郵券六錢)

發行所 京城府黃金町參丁目參壹〇番地
通信教授高等普通學會
電話本局四七貳·振替京城八八九五

ヘルメスウヰスキー
헤메스 휘스키ー
深刻한香 芳烈한味 이것이외다世界의名酒
529

統義府員潛入說과 忠北警察의 態度

어느뎜으로든지 미덥지안타 그러나 경계만은 엄중히 하여

만주방면에잇는 독립단 등의 부원의 일파이백여명이 농부(農夫) 행상인(行商人) 등으로 변하야 고려히 남도디방에 들어와서 충북(忠北) 일대를 중심으로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며 활동한다는 풍설이 각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이에 대한 충청북도 경찰부고등과장(忠北警察部高等課長)은 십구일오후에 사택으로 방문한 기자에게 말하되

도모지가 미덥지 못한것이 위선 이백명이라는 다수입니다 과연 이백명이 조선중앙인 충북에 드러왓다면 이는 그들의 생각이 부족한것으로 첫재 충북은 경기나 경상도와 달라서 경찰의 힘이 각군에 균등하게 정돈되엇고 또는 일시에 수상한 인물이 다수히 드러와 엇던 행동을 하며 또는 사투리를 쓰는 등 여러뎜으로 보아 발각되기 용이한 것이니 여러뎜으로 보와 결코 그가튼 다수에 달하는 동의 부원이 잠입햇다는 것은 미듬수 업는 일이며 간혹 드러왓다던 다섯사람에 지나지 못할것일 줄도 압니다 알수는 업는 일이외다만은 권레에 업는 충북에 드러왓슬리는 업겟지요 나는 어러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야 특별한 경계도 필요치 안케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평소부터 십분경계중 입니다 운운(청주)

熙川南面에서 衝突

무장단한명피살 삼총긔압수

지난십구일 오후열시 오십분경에 희천군남면송곳지동(熙川郡南面宋串之洞)에서 무장단수명과 희천서원 순사부장이하 사명의 수색반과 서로충돌되여 약삼십분동안이나 교전하엿는데 무장단측에서는 한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삼십년식 보명총 한자루와 탄환기타를 다수압수하엿다더라(희주)

順川서도 二名被逮

동의군이 다수히 드러왓다고 부근경찰은 크게 활동중이다

평남순천군신창면마동리(平順川郡新倉面馬洞里) 부호최모(崔某)의 집에는 지난십구일 오후네시경에 권총을 휴대한 무장단 두명이 침입하야 뎜심을식혀먹고 잇섯는데 이소식을 접한 순천경찰서즐간경부보(櫛間警部補)이하 순사사명의 경관대는 이를 포위공격키 시작함으로 무장단도 이에 응전하야 약십분간 교전하엿스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무장단두명이 모다 잡혓는데 그들은 말하되 자긔들은 동의군(統義軍)으로 금번단원 내 십이명이 침입하엿는데 두명은 순천읍(順川邑)으로 향하고 자긔는 성천(成川) 방면의 경비관계를 내탐하러 온 선동대라고 말하야 엄중경계중이라더라(성천)

◇女子青年納涼映講會=조선녀자청년회주최의 납량영화대회(納涼映講大會)는 예뎡과가티 이십이일 오후팔시부터 데일회를 시내교동공립보통학교(校洞公普校) 운동장에서 열엇는데 해가지기도전부터 몰려드는 부인관객은 뎡각전부터 만원의 성황을 이루엇더라(사진은 영화회장의 광경)

南浦築港에 美人屍도 漂着

주소성명이 미상하야 검시를 마치고 곳 매장

요사이에 진남포(鎭南浦)항에는 대동강(大同江) 상류로부터 떠나려오는 시톄(屍體)의 방문이 빈빈하야 진남포경찰서와 부령(府廳)에서는 곤고를 또 지못하는중인데 지난십팔일 오전아홉시반쯤 되여서는 한사람의 시톄를 베옷으로 단장한 약이십세 가량되여 보이는 녀자의 시톄가 또 진남포 축항(築港)안에 떠드러왓슴으로 경찰의(警察醫)로 시톄를 검시케한후 부(府)에 인도하야 공동묘디에 매장하엿다는데 죽은지는 약삼주일이나 되고 전신은 모다 썩어서 도저히 주소성명을 알수가 업다더라(진남포)

十二名檢事局에

醴泉衡平襲擊事件

청수검사가 현장에 출장취됴 이십일일안동검사국으로송치

경북례천읍(醴泉邑)에서 수천명 농민이 동디형평분사(衡平分社)를 습격하는 동시에 형평사중앙총본부(中央總本部)로부터 출장하엿던 장지필(張志弼) 리소(李笑) 량씨를 중상식힌 사실에 대하야는 이미 누누히 보도한바어니와 십팔일부터 대구 디방법원 안동지령(安東支廳) 청수검사(淸水檢事)가 현장에 출장됴사하는 동시에 례천경찰서에 검거된 범인을 축검취됴에 착수하야 이십일에 이르러서는 거진 취됴를 다친결과 장재화(張在化)외 십일명만 안동검사국으로 송치하고 남은사람은 방면하엿다더라

倭館衡平襲擊은 사실오전이라고

경부선왜관역(京釜線倭館驛)부근에잇는 농민다수가 작당하야 당디형평분사에서 총회하랴면 따려 죽이겟다고하야 총회까지 중지되엿다는것이 세상에 선전되여 역시 적지아니한 주목을 끌러오던바 그후 그자세한 내용을 됴사한결과 당시 례천에서 형평사습격사건이 발생한이래 각디방에서 례천습격사건의 이야기가 잘못전파되여 그와가티 오전(誤傳)된것이오 왜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업섯다더라

楊州에 흰제비

전에업든제비 속평이분분하다

양주군 백석면긔산리(楊州郡白石面箕山里)란곳에는 고금에 듯고보지못한 흰제비(白燕)가 본월중순경부터 발생되여 쌍쌍이 날아다닌다는데 그제비는 보통제비와 석겨다닌다하며 톄형과 동작이 다른제비와 조곰도 틀림이 업다는바 그곳로인과 일반리민은 흰제비는 처음본다하야 길됴라는등 혹은 불상한조짐이라고 하야 자못 속평이 분분하다고(양주)

酒造組合을 解散하라 千餘名이 郡廳에 殺到

무주읍내로동자의 소동전말 조합때문에 술장사도 곤난

전북무주군(全北茂朱郡)에서는 지난십구일부터 로동자 천여명이 돌연히 금주동맹회를 조직하야 광상히 선전한다 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그원인을 들으면 읍내박한식(同郡邑內朴漢植)으로부터 충청북도 영동군학산면봉소리(忠淸北道永同郡鶴山面鳳巢里)에서 개인으로

주조영업 하는 황갑진(黃甲辰)에게 술을보내주면 내가팔아 주겟다니 보내달라고 약속하고 팔다가 군당국(郡當局)의 취례를 당하야 판매금지를 당한후로 로동자들은 일제히 천여명이 집합하야 유흥이 요란케 풍장을 울리고 밤낫으로 금주선전을하다가 결국은 군령에 들어가 질문을 시작하야 문데가 된바 주조조합은 술맛도 조치못하고 사먹는데도 불편이 만흘뿐아니라 데일술을 먹으면 두통복통이나서 만흔괴통을주고 맛도시어서 먹을수업는술을팔아도

취례치 지 안코 아모리 다른골에서 사온 술이라할지라도 맛조흔술은 판매금지를 하니 너무나 주조조합만 생각하고 농군의 위생은 생각지아니함이오 그뿐아니라 주조조합설립이후로 해독을 들어말하면 조합권영업자는 거개 빈한한 사람으로 술을제조판매하야 혹은 이삼식구로 심지어 십여식구까지 넉넉히 생활을 하야 오더니 조합이 된이후는 거개생활난을 부르짓고 원망하는소리가 부절하더니 엇지할수업시 호구하자고 판매영업을 하나 리익은 조합에서 다먹고 한말 팔면 이삼십전 남는것은 외상뿐이니

엇지살수 잇슬가 죽겟다고 팔아도 조합장사만 하야주니 빈한한 백성이 살길이 업스니 살게하야 달라고 군수에게 진정하러 온것이라더라

郡當局도 認定 조도록해결에 로력하겟다고

군수는 도령에 출장하고 업슴으로 재무주임(財務主任)의 말을 드른즉 그들의 행동도 무리라하나 주조조합은 군당국에서 임의로 엇지할수 업스니 군수가 온후 상의하야 잘해결하야 주겟스니 너무소란하지 말고 도라가서 업무에나 힘쓰라고하엿다더라

郡守歸任과 群衆再騷 주조조합을 속히업시하라고

다시 천여명군중은 풍장과 금주선전기를들고 이십일 아츰부터 읍내를 한번돌은후에 오후 군수가오라한즉 일제히 들어가서 진정이나 하야 현명한 해결을 듯자고 선언한후에 열한시경에 여권히 군령마당에 빈틈업시 모여 주조조합을 업새달라는 문데가 일허나가기 시작하야 오일대소동이 일허나고 불온한행동이 잇섯스나 경찰서원 발동이 출동하야 별일은 업섯고 군수의 충분한설명으로 당일은 해산되얏스나 주조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는 여전히 선뎐을 계속한다더라

解決努力言明 군수도사정짐작

이에 대하야 군수는 말하되 그들의 말은 다 올엇스나 나는 부임초부터 민간의 사정과 주조조합의 불평을 듯고 상금까지 여러가지로 연구중이요 인민이 소동치안트래도 생각이 잇스니 념려말고 도라가면 도당국에 보고하야 인민의 소원내로 속히해결하야 준다 하얏다더라(무주)

光化門局公金紛失事件 犯人은 局內에잇다

협의로 취됴중의 네명방송 머로히 협의자를 잡게되는듯

광화문우편국(光化門郵便局)에서 현금륙천원을 도난당한 사건은 이미 누보한바어니와 그후 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주야로 불면불휴하며 대활동을 하엿스나 아직까지 범인은 체포치 못하엿다하며 이십일밤부터 호출하야 취됴중이든 광화문우편국원 사명은 이십이일 오후에 전부 돌려보내엇다는데 이십삼일은 일요일임도 불구하고 사법계원이 전부총출동하야 각방면으로 대수색을 한결과 그범인이 광화문우편국원인듯한것을 탐지하엿슴으로 금명간 범인은 테포될듯하다더라

鱶魚中毒으로 一家三人慘死

상어로국을쓰려먹은결과 다섯사람이모다중독되야 達城月背面의 慘事

경북달성군 월배면 상동(達城郡月背面上洞) 삼백오십사번디에사는 림준이(林俊伊)(四四)는 지난십륙일에 나무를지고 대구(大邱)에 드러왓다가 대구서문시장(西門市場)에서 상어(鱶)의머리를 삼십사전에 사가지고 가서 그이튿날 십칠일 정오뎜심때에 국을 쓰려가지고 먹엇든바 중독이 되야 권긔호주림준이외 그의모친 박감임(朴甘任)(六四)과 장녀림선이(林仙伊)(八)는 즉사하고 림준이의처는 마츰조금먹엇슴으로 일시는 위험하엿스나 다행히 생명에는 관계업시되얏스며 그동리녀자 한명도 이국을 어더먹고 중독되야 매우위험한중에 잇다더라(대구)

南門內의 大亂鬪 原因은 醉客暴行

종로에서부터 싸홈이되야 남문안에서지가며 싸홈한것 雙方의 重傷者가 五名

조간속보=이십이일밤열시경에 시내남대문안 뎐차뎡류장부근에서 조선인과일본인간에 대혈전(血戰)이 잇섯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후 탐문한바에 의지하면 그날밤에 종로(鍾路)일뎡목에서 일본인 미장이(土工)산뎐모(山田某)외 여섯명과 조선인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김모(金某)외 세명이 약간 술이 취하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본인측에서 별안간 조선인을 발길로 차서 서로 일네격투가 잇섯스나 종로경찰서원의 설유로 무사히 해산되엇든바 그일본인은 다시 남대문안에 가서 다른 조선인에게 또 주정을 하며 폭행을 부림하는고로 그광경을 보든 군중이 분개함을 참지못하야 그와가티 충돌되어 쌍방에 중상자를 내이게된것인데

현장에는 원악다수한군중이 모혀서 일시 권쟁상태이엇슴으로 가해자피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미처 됴사치 못하엿다는데 그쌍방의 중상자는 강구모(江口某) 화뎐모(和田某) 교본모(橋本某) 금광모(金光某) 박종삼(朴鍾三) 등 다섯명이라하며 본뎡경찰서에서는 그사건의 관계자와 내막을 방금됴사중이라더라

生命에는 無慮 중상자의 용태

쌍방의 부상자는 약간 중상은 중상이나 생명에는 아모관계가 업다더라

◇十二歲少年이 十二次도적질◇

나히가어리다고 경찰은 설유방송

시내무교뎡(武橋町)일백사십번디 출생인 리룡순(李龍順)(一三)이는 금년칠월 초하루에 종로야시장에서 사람의 만흔틈을 타 견지동(堅志洞)이십일번디 표효성(表錫成)의 양복주머니로부터 현금 칠원오십전 훔친것을 비롯하야 팔월칠일까지 열두사람의 통행인에게서 현금 또는 물품을 훔처낸것이 발각되여 수일전에 본뎡서형사에게 검거되엇는데 엄중히 설유하야 그대로 돌려보냇다고

一族共謀로 殺人

소노앗다고 어쟁이되야 마진사람이 마츰내죽어

달성군현풍면오산동(達城郡玄風面五山洞)에 사는 서석룡(徐錫龍)(二九)은 팔월칠일 오후네시경에 뒤산에 매여잇든 소가 곱비를 는코 동리 서선곤(徐善坤)의 산으로 드러갓든바 이것으로써 로언쟁이 되야 권긔 서선곤의 가족다섯사람이 서석룡을 따리여 매우 위중하든바 십구일에 대구도립병원에 와서 치료하는중 이십일에 드듸어 죽엇슴으로 피해자편에서는 고소를 데긔하얏더라(대구)

假巡査가 一年懲役不服

공갈취재와 불법테포를 한자

충청북도 괴산군사리면 사담리(忠北槐山郡沙梨面沙潭里) 최상봉(崔相奉)(三二)은 지난사월이후로 몸에 포승(捕繩)을 가지고 다니면서 안성군일죽면금산리(安城郡一竹面金山里) 음식뎜 김흥룡(金興龍)의 집에 드러가서 그주인과 숙박중이 김호배(金鎬倍)에게 자긔는 사복순사라고 하고 가텅음수색한후 김호배에게서는 현금오원이십전과 김흥룡에게서는 양산삼원자리를 사취하여간것을 비롯하야 관후오취를 그가튼수단으로 십지어 여러사람을 겁박까지하여가지고 다니면서 금권을 사취한 사실로 경성디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된것이 위판녕 사칭사긔 공갈취재(官名詐稱恐嚇不法逮捕)등죄로 징역일년의 판결을 밧고 이에 불복후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데긔하엿다더라

鐵窓을 버서나 黃泉에

평양에서 도주한 죄수시톄발견

긔보=보통강(普通江)으로 들어간후 한참동안 종적을 알수업든 평양형무소 도주수인 정계관(鄭繼寬)은 이십이일 오전일곱시경에 송장이 되여가지고 대동강 연안으로 떠올랏슴으로 디방법원검사국으로부터 즉시 계원이 출장검시한후 매장하얏다더라(평양)

錢慌을 好機로 典當業者의 含慾

평양에서 무리한 리자를 밧더 경찰은 단호한 처치를 하고자

평양부내의 전황으로 말미암아 부내에 잇는 삼십여명의 전당옥(質屋) 영업자들은 서로서로 경쟁뎍으로 무리한 폭리를 탐하는자가 만히 잇게 되엿다는바 위선 부내본뎡 사는 일본인모(某)는 팔천대뎡(八千代町) 모에게로부터 백원에 치금시계 한개를 던당잡고 이원리자(利子)바늘것을 이원오십전이나 바든일이 잇스며 또한 그외에 감반호불건의 던당을 삼을때는 금액수를 몃번이나 소구(小口)로 난호아가지고 각각 비싼 금리(金利)를 무러먹고 심한자는 던당표에 인지까지 부치지 안코 탈세(脫稅)까지 하는자가 잇슴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자금이후로 그런자들에게는 단호한 처치를 취하리라더라(평양)

세수그릇하나로 兩家族의 亂鬪

군산에서생긴

현사회의 제도하에서는 일호의 물품일지라도 제것을 삼으랴고 부자간에도 재판(裁判) 형제간에도 쌈홈 심한자는 살인까지도 예사로하야 사람이 약하거나 밉거나 사회야 망하거나 알지나 오직 제소유와 리익만 아는 무도뎍한

남녀로소 할것업시 여러사람이 모혀 일대격투가 이러나서 대소동이 되야 오고가는 행인들이 무슨 구경거리나 잇는듯이 수십명이 모혀엇다는데 자세한 말을 드른즉 군산부 고덕선(高德善)과 류귀종(柳貴鍾)이가 튼 한집에서 두살림을 하야오는중에 고덕선은 류귀종의 왕래하는길을 덧문으로 가로막어 노앗슴으로 컴컴한 어둔밤에 이것을 모르고 류귀종이 가나가다가 그덧문에 채여 권긔 고덕선의 세수그릇 한개를 부시엇는바 이로인하야 피차싸홈이 낫는데 고씨편에서는 온집안식구가 다나와서 류씨를 보고 「이놈 세수그릇 사오다」하는 욕설을 함으로 도류씨편 식구도 모다 나와서 욕설로 대항을 하는 바람에 구경거리가 꽤 되얏다는바 한집에 가튼처디에서 친히 지내든 사람들이 세수룻지아니한 세수그릇 한개로 인하야 온집안식구까지 나와서 이와가티 싸홈을하는것은 너무나 인정을 무시하는일이라고 하더라(군산)

水害義金萬餘圓

대판에서련합으로모집되어 계속하야더모집하기에로력

대판부(大阪府)와 대판시상업회의소 련맹(市商業會議所)의 련합으로 칠월이십오일이래 긔부모집중이든 조선수해의연금은 일만삼백원(부에서 모집한것이 륙천원 시에서 한것이 사천삼백원)인데 이십이일 발리어 모하 뎨일회결과 다시 구월이십일까지 연긔하야 각방면으로 더모집하기로 하엿다더라(대판뎐보)

醜婦檢擧

평양서의활동 도박군만잡혀

요사이 평양부내에는 일반청춘남녀사이에 풍긔가 매우조치못하야지는 경향이 잇슴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더욱 심한 밀매음녀들을 일망타진하고자 검거하기 위하야 이십일일밤 열한시경에 이르러 비상소집으로 권서원이 총출동을 하야가지고 이십이일새벽 네시에 이르기까지 평시주목하여 나려오든 각음식뎜 공가(空家) 등을 엄밀히 수색하엿스나 결국 목뎍한바 밀매음녀는 용이히 검거하지 못하고 도박군 세명과 불량자 두명만 그물에 걸리엇다더라(평양)

高等女院移轉擴張

청진동에서관훈동에

시내청진동(淸進洞)에 잇는 경성고등녀학원(京城高等女學院)은 그동안 우리녀자학계에 만흔공헌이 잇서오던 그학원의 모든것이 나날히 축신증하야감을따라 현재의교사가 협착하야 감을 바드되여 오는 구월일일부터 교사를 관훈동(寬勳洞) 삼십번디의 이층양옥으로 옴기고 일층그 내용을 확장하는 동시에 가뎡부인을 위하야 야학을 신설하며 다시 영어(英語) 수학(數學) 등의 전문부도 설치할터이라더라

소낙비에 五十戶浸水

이십이일오후 시내관훈동에

이십이일 오후세시경부터 나리기 시작한 소낙비로 인하야 시내관훈동(寬勳洞)에는 약오십여호의 가옥이 침수되어 일시소동을 일우엇더라

蓮池靑年發起

이십일에발긔

시내련지동(蓮池洞)에 잇는 청년들은 지난번 수해구제를 동긔로 하야 이십일하오구시에 련지동칠십오번디에 모히어 련지청년회(蓮池靑年會)발긔회를 열고 장홍수만(洪穡萬)씨의 사회로 여러가지를 토의한후 집행위원으로 홍수만 김동환(金東煥) 김뎡산(金定山) 김사주(金思疇)씨등을 선거하엿다더라

飮毒自殺未遂

원인은생활난

대구부달성뎡(大邱達城町)일백일번디 음식뎜 박원일(朴元日)(四一)은 지나간 이십일일 오전세시경에 자긔집 안방에서 취상는 약을먹고 고민중에 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대구의원으로 업고가서 응급수당을 한결과 생명에는 큰관계가 업다하나 아즉 모르겟스며 그자살코자한 원인은 생활곤난으로 권도를 비관하고 이와가티 자살코자함이라더라(대구)

『하바』賭博團

대구서에서김거

지나간 이십일일 오전열한시부터 대구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서원삼십여명이 출동하야 『하바』도박장을 수색한결과에 시내 북내뎡(北內町)모음식뎜에서 이십인을 검속하얏스나 두사람외에는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모다 방석하얏는데 그중에 아홉사람은 부당사로 이십일간 구류에 처하얏다더라(대구)

疑妻症으로 深夜騷動

시민새지 헛소동

김천황금뎡(金泉黃金町)에서는 지난십구일밤 열시경에 비가와서 사방이 적막한데 도적이야 웨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구름가티 모여들며 김천경찰서원(金泉警察署員)까지 출동하야 도적찾기에 큰소동이 일어낫스나 도적은 잡지못하고 사실발생한곳을 차저간즉 김육자(金六股)란자와 정갑식(丁甲植)이란 두사람이 쌈홈을 하다가 뎡갑식이는 매를 견되지 못하야 도망을 치고 김육자는 저놈 잡아라 소리를 처며

달하가는 것을 지나가든 사람이 도적인줄 잘못알고 도적이라고 소리를 친것이라는데 그싸홈의 원인을 듯건대 김육자는 본시성주군(星州郡)사는 사람으로 생활의 곤난을 이기지못하야 김천황금뎡(金泉黃金町)으로 이사를 와서 구차한 생활로 그날그날을 지내오는중에 마음이 편치못한것은 권긔 뎡갑식(丁甲植)(二六)이와

자긔안해 사이에 추한관계가 잇는듯하야 항상주목하고자 긔안해가 도망이나 아니할가 념려로 지내든차 그날은 초저녁에 대로가고 몃시간이 지나도록 도라오지 안음으로 도망간줄로 생각하고 나려가 뎡갑식이가 또와서 자긔안해와 무슨이야기를 비밀히 하고간뒤에 차자나려가 싸홈을한것이라는 데 감짜기 아주종적을 감추고계집은 이웃집에갓다온다하면서 도라왓다더라(김천)

出獄即時에 竊盜

제버릇개못주는 일본인철도한명

지나간 이십일일 밤열한시경에 본뎍을 일본암수현(岩手縣)에 두고 주소도 업시 철도권과자로 수일전에 대구감옥에서 나온 이등암좌(伊藤岩佐)(二九)는 시내팔운뎡(八雲町) 륙십팔번디 청가(淸家)라는 고물상에서 물건여덜가지 시가 일백륙십여원어치를 훔쳐가지고 도주하다가 테포되얏다더라(대구)

群山窃盜頻數

경제핍박의원인인듯

전북군산(全北群山)에는 미곡류(米穀類)의 이수출(移輸出)이 조선에서 데일위를 뎜당하는 중요한 항구일뿐아니라 호남선에 잇서서 중요한 도회디인 까닭에 시민은 다수가 상업에 종사하야 로동생활로 그날그날을 지나는터인데 근자에는 권업불경긔한 관계상 실직자가 격증하는 동시에 도박군이 늘고 절도가 빈빈한데 마츰 지난이십이일새벽에 군산부개복동십번디(群山府開福洞一〇) 김황(金煌)씨의 집에서는 의복과 보리등속의 도난이 잇섯다는데 마츰세탁하야 물에 당거노흔 의복과 그것을 미두어보더래도 생활난에 쐿들닌 사람의 행위인것이 분명하다는데 더욱이 구력팔월대목도 갓가워오며 업는사람들의 곤난한 섀임으로 일반은 주할이 조릿다더라(군산)

龜城水害

별로크지는 아니하얏다

평북귀성디방(平北龜城地方)에는 지난십팔일 오후여섯시부터 시작한 비가 십삼일 아츰까지 퍼부어 그런데 보지못하든 큰홍수로 증수가 십이척에 달하야 침수가옥이 십여호요 농작물의 류실피해가 불소하야 민심이 흉흉하든중 또 지난십구일오후 일곱시부터 시작된 비가 련하야 이삼일간이나 계속하며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몹시불어 던답을 어지러히 하는 모양이며 별서 물은 사척가량이나 증수되야 일반이 크게 념려중이더니 이십일일 명시이십분경에 이르러 비가개이고 바람이그치여 요행이 별로큰손해는 업다더라(귀성)

技競運動

湖南地方에서 歡迎밧는 코취庭球巡廻

湖南地方을 巡廻하면서 庭球코취를하야 이르는곳마다 歡迎을밧는 本社運動部의招聘을바든 巡廻코치 賀源氏는 元來의豫定인 第一回湖南地方코취를마치고 二三回의 順次로 京義京釜京元線의沿線地方을 巡廻할豫定으로 그동안 申請까지 接受한 地方團體가 多數에 이르는터인데 지난九日에 마치야할 湖南地方의日程이 雨天과 및 豫定以外地方의 特別한 懇請이 만흠뿐아니라 近日湖南여러地方에서 열리는 모든大會의 審判을 兼하야 코취를 行하얏슴으로 日程은 不得已延期되는同時에 形便에依하야 他地方中中止하는 地方도 잇슬지도 모르겟다

四十二打壘本

『혼스피』가 最高位

센트·루이스카ー디나ー날軍의 監督 할스·홈스피氏는 本日 뉴욕巨人軍과의 戰技에 또本壘打를 처서 今年시슨에서 同氏의 本壘打二十四本이 되얏스며 「내슈낼리ー그」에서 十本以上의 本壘打를 친者가 혼스피를 加하야 十八이나 「아메리칸리ー그」에서는 五人뿐인데 氏名은 다음과갓다

◇내슈낼리ー그◇

혼스피(센트루이수)	24
하드렛드(시카고)	21
쏘트무레(센트루이스)	15
후니에(쌕룩클린)	14
케리(뉴욕)	14
이뮤쎌(뉴욕)	13
라이드(핏구밝구)	12
허바(필드텔피아)	12
카가라(핏스밝구)	11
라이드스톤(쌕府)	11

◇아메리칸리ー그◇

윌리암스(센트루이스)	22
알미우스(뉴욕)	21
사이몬스(쌕府)	15
고스린(와싱톤)	11
고푸(데드로이드)	11

(뉴욕國際七月十六日郵信)

日本中等校野球

六回까지 5對0 高松軍依然優勢

大朝主催의 日本中等校野球大會의 決勝戰인 高松商業對早稻田實業戰은 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甲子園에서 早實先攻으로 開戰된바 六回까지는 得點五對零으로 高松軍優勢를 取한바 早實軍도 力戰中(大阪發二十三日午後四時着電)

得點	
高	050000?=?
早	000000?=?

종명자

▲달성군에서는 상어국에 중독되야 일가삼인이 참혹히 죽엇다 복어가튼것은 원래가 유독한것으로 일반이 경계하는바어니와 상어는 일반으로 [illegible] 이러한 긔회에 당국은 맛당히 원인을 또 사하야 의외의 변이 업도록 함이 필요가 업슬가▲세수그릇 하나로 인하야 두집안이 서로 어우러저서 싸호주악한 사실이 잇다 넷날에 상가트면 몰볼기라도 더릴만한 자들이다 그러나 되지도못한 자유사상이 사회적 제재를 무시하는 이관이라 오호! 이세상이 엇지되라는 셈이뇨?▲광화문우편국의 공금륙천원 분실사건은 사건이 발생하지 사흠이되도록 아즉도 범인이 나서지 아니하엿다, 경찰의 총본영이라할 경성시내, 더욱히 민활한 경관이 만키로 유명한 종로서의 관내에서 이만한일에 범인을 잡지못한다 하면 그야말로 면목이 업슬것, 삼서장은 더위에 건권히 잇는가

第十四期 大正十四年上半季 決算報告

貸借對照表 (大正十四年六月三十日現在)

資産

拂込未濟資本金	一六,〇〇〇,〇〇〇.〇〇
債券價格較差	五九〇,六〇〇.〇〇
諸預ヶ金	一九,二四一,一五一.七六
年賦定期貸付	一三六,七六七,一七五.一八
引受債券	三四七,〇〇〇.〇〇
割引手形	[illegible]
當座貸越其他諸貸付	四六,三三一,二九二.六一
短期貸付	[illegible]
貯蓄諸貸付	二,三七六,〇〇七.二三
他店ヘ貸	[illegible]
支拂承諾見返	[illegible]
代理貸付	[illegible]
諸假拂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土地建物什器	[illegible]
流込物件	[illegible]
金銀勘定	[illegible]
合計	[illegible]

負債

資本金	三〇,〇〇〇,〇〇〇.〇〇
諸積立金	二,八五三,二七〇.〇〇
未拂配當金	[illegible]
債券發行高	[illegible]
未拂債券元利金	[illegible]
政府諸貸下金	[illegible]
地方費及諸預金	[illegible]
諸貯蓄預金	[illegible]
諸借入金	[illegible]
日本勸業銀行代理店	[illegible]
他店ヨリ借	[illegible]
本支店間未達	[illegible]
支拂承諾	[illegible]
代理貸付保證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當期純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損益勘定

當期純益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此分配	
缺損補塡準備金	[illegible]
配當平均準備金	[illegible]
配當金(政府持株ヲ除キ年九分)	[illegible]
役員賞與及交際費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右ノ通ニ候也
大正十四年八月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豐
理事 櫻井小一
理事 石井光雄
理事 森悟一
監事 侯爵 朴泳孝
監事 [illegible]
監事 [illegible]

朝鮮自動車研究所
運轉士之養成 運轉士之紹介
入學案內書二錢郵券封入申込次第送呈함
京城府岡崎町八番地 電話龍山一〇二二番

利洋椅子卓家具 土建築設計監督 請負業
親切叮嚀信用遵守 遠近地方注文特別廉價提供
三友組工場
京元線鐵原邑內 通用電話一〇七番

平壤 東明學館補缺生募集
高等科、普通科各若干名
願書提出九月十日迄 詳細來問本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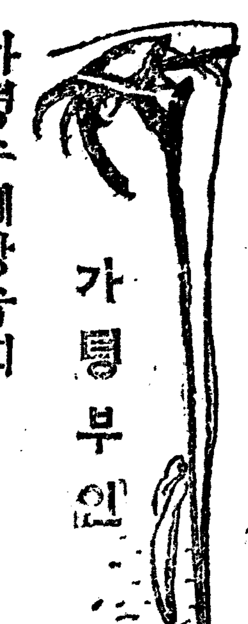
各種印材販賣
諸印章及ゴム印彫刻 名刺印刷其他附屬品 各官廳會社御用達 (地方은代金引換) 目錄進呈
京城鍾路三丁目貳拾六番地 文華堂印鋪
電話光化門壹四壹壹 振替京城五〇二八

最新式엑쓰光線設置
百濟病院
釜山府草梁 電話一六二七番 一〇八壹番 二七一番
◇入院隨意 釜山鎭分院 大新洞分院

最新式 萬年筆 High Class Fountain Pen
紳士用 學生用 淑女用
定價二圓五十錢至五圓
京城鍾路二丁目 光榮社

當八月廿一日金曜日부터
連續 迅雷列車 第二回第三編第四編上映 三十五卷
原作 에드와ー즈세지윅크氏 脚色 조ー지할ー氏 監督 에드와ー즈세지윅크氏
成功成功
金髮美人 冒險의娘
히ー키부송孃主演 車上의冒險
西部活劇 世界的名犬바ー루主演 大喜活劇 싸루의大活劇
松竹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임질의靈藥 治淋球 一圓、一圓八十錢、三圓
梅毒의靈藥 根治丸 一圓、一圓八十錢、三圓
京城南大門內 救世藥館 電本二九六九 振替一二六九



가뎡부인

가뎡수예강습회 증서수여식거행
팔월이십이일에
습작품은일주일간본사대리부에진렬

본사주최로 지난십일부터 남대문통 조선일보사대리부 삼층에서 제일회가뎡수예강습회(家庭手藝講習會)를열고 문경자(文敬子)양을 선생으로고빙하야일반가뎡부인들에게 기예에대한지식을 넓혀준다함은 이미여러번 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예정과가티 이십이일정오에 대청황으로 희늣마치게되엿다 씨는듯 삼는듯한 더위를무릅쓰고십일간 배호질과 마참내 에푸롱, 방석, 테ー블보, 책상보, 뎡경이 등 여러가지를 실용뎍불란서자수로 수노아마치고 리봉대롤로 어엽분 손주머니를 커마다만들엇다 이에본사에서는 그들의재간과 수고를깁히칭양하고 니어서 당일오후한시에 성대한수업식을 거행하엿다 먼저본사의다과향응이잇슨후다시좌석을정돈하고 본사상무리사안재홍(安在鴻)씨의간단한 사회로식이열리여 본강습생중 윤정식(尹貞植)양을 총대로 이십칠인의증서를 수여하엿고 그들의일동을 대표하야 김숙배(金淑培)녀사가 수예가부인들에게 얼마즘 필요하다는말과 이러케조흔긔회를열어준본사와 삼한더위에 지성으로 가르켜주신 강사에게충심으로 감사하다는답사가잇섯다 식은이로써 맛나고 뒤를니어 강습생일동의 간담회가 열니엇스니 십여일동안이나 한자리에 가티안저 배호기에힘쓰든 그때뜻한정리를 잡아서로 잇기어려워 긔렴사진을 촬영하고 맛잇는음식과 흥미잇는유희로 즐거웁게놀다가 고려미술근화원(高麗美術槿花院)에서축하로보내인무궁화(無窮花)한가지식을손에들고 늣게야 헤여젓더라 (이번강습회의습작품은 일주일동안 남대문통본사대리부에 진렬하기로하엿슴)

◇사진설명……우는수예습작품, 아래는수예강습수여식광경

종로녀학확장
보통과이외에 고등예비신설

시내인사동 중앙 례배당내(市內仁寺洞中央禮拜堂內)에 잇는 종로녀학교(鍾路女學校)는창설십오년(創設十五年)동안 규모뎍으로 보통사업에 다수한학생을수용하야 오든바 금추부터는부속고등예비과(附屬高等豫科)를 신설하는동시모든설비를 충분하게 확장아니라 우수한교원 선생을 고빙하야 실력본위로교수한다하며 보통과의 보결생과고등예비과의 학생을 다수모집하리라는데 자세한것은 동교로문의함이조타더라

나드리옷에저즌 땀배는법
레몬물과 아모니아수로

요새 가티뜨거운날에 갑비싼의복을곱게곱게지어입고나드리한번만 나갓다도라오면 아모리속적삼을 바처입엇드라도 할지라도 겨드랑이와 겻에는 땀이 배이는것이올시다 그리고한번 땀이배엿든 의복을그대로 너허두면 그이듬해에는 누러케 젓어서 보기에흉업게될뿐아니라 빨어도 산뜻한빗이나지안슴니다 그럼으로 의복에땀이배이거든 할수잇는대로 속히처치하여야 할것이올시다 의복에땀이 배이면 먼저그땀배인곳에 레몬물을 만든데ー몬즙에 적셔서 비누로 빨면곳씨집니다만 약여러해 동안두어서 노라케결은것일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번되푸리하면잘씨지는것 이올시다 무명옷이나 모시옷가튼것은 오히려빨수록 더고아지는 고로땀이배이면해를 묵이여 둘필요가업지마는 녀자의 녀름나드리져고리로가장 만히 수용되는 당항라은조사 생삼팔 왜사등속은한번이라도 빨면처음과 가티윤택한빗이업서지는 것이니 것테에땀이좀배엿다고 곳빨수도 업는것이올시다 그런것은암모니아수를물에타서솜이나 또는 융가튼것에무처서 가만가만 문질르면씨집니다그리고 레ー몬즙에 잠간흰서서볼에 흔드러 해빗에널어두어도조흐나다만한가지주의할것은오래동안 레몬즙에 담거두지말것이니 그시간이 만히지나면무색의복은빗이씨집니다

향수이약이 (二)
장미꼿향긔를실여하는승려와 말똥냄새를조하하는서양녀자
◇이성을끄는힘이만은사향◇

비로부터취각(嗅覺)에대하야여러사람의 일화(逸話)가 적지아니하니 불란서의 대승정(大僧正)녜고랏파ー는장미(薔薇)의향긔를 극히실혀하야 장미꼿이 피일절기가되면 집안에 가만히드러안저 한거름도 문밧게나서지아니하엿고 하인들에게 명하야 **장미꼿을** 가진사람은절대로문안에드리지도못하게하엿다한다 일반이장미의향긔를 약일만분의일까지는 능히 마틀수잇는힘을가젓다 또한 코코기로세계에일홈놉흔영국엘니사베ㅅ녀왕의시녀(侍女)한사람은장미꼿내암새를마트면 곳 그자리에서 혼도하는증이일어난다하며 불란서의『푸렌취』일세는능금내암새는 참아마틀수업다하야 능금을궁안에드리지못하게하엿고이와반대로 독일(獨逸)의대시인『씰라』는능금을책상 설합속에너코그것을썩혀어 써써로 내암새를맛지아니하면그의 **창작흥미**(創作興味)는 도모지일어나지아니한다하얏다 그리고녯적라마(羅馬)의황데『고부로닝스』는말똥냄새를매우사랑하엿스니 이것은 요사히 도애마가(愛馬家)들중에서만히볼수잇는사실이요 구미각국 부인들의일부는 말똥냄새가 말할수업시 조흔향긔라하며 따라서 사관(士官)이나승마가(乘馬家)가아니면 애인(愛人)을삼지 안는다는말까지도잇다 불란서의 시인들은『마리라향긔를! 잘맛튼녀자는 나의사랑이다』하고부르짓기를마지아니하는것이다참말

향긔와애 정취각과청욕 ━이와가튼관련은매우밀접한 것이니 모든향료(香料)가 화장품가온데 들어잇서 가장중요한 지위를점령하는것은한편으로생각하면상대자를 흥분식히기위함이라고 일커르는수가잇다 동물성향료로는 귀중한 사향(麝香) 사묘향(麝猫香)해리향(海狸香) 가튼것이 제일 리상을만히이끄는 힘이잇스니사향록(麝香鹿)은희말니야산맥『알다이』산맥등의 이천척이상높흔 고개에서 소나무잣나무등석봉을먹고사는동물이다 그수컷 **생식긔에** 쎄쎄로분필하는주머니를 가젓스니 두살이상이되면 이가온데소위사향을 커장게되는것이다 포수들은 이것을쏘아죽이고 사승한마리로 부터겨우삼십구람에더지나지못하는이주머니를 쎄여가지는 것이니 이것이즉귀중한 사향이다사모(麝猫)는티벳트디방에서나는 고양이의일종이니 이것은죽지안코 분필물을 그대로채집하는것이요 이외에말향경(抹香鯨)으로부터 취하는용연향(龍涎香)이라는것도잇고소의일종 거북의일종━그러한것들속에도 **향긔를분** 필하는것이만히잇다 하여간동물성향료는 흥분성이강한고로 모든꼿의 향긔로부터 취하는향수에도 동물성의향료와 잘조화하지아니하면 완전한것이되지못하엿스니라동물성향료는 급격한발산을 막고오래동안그향긔를보존함으로더 욱귀한향료가되는것이다(계속)

가뎡평론
이처버린중대문뎨
三村人

◇오늘부터우리『가뎡부인』란의지면을 빌어서매일한편식『가뎡평론』 이라는짤막한글을적어보랴합니다 사회가 날마다쎄어가고 인지가쎄쎄로 밝어감을따라일반사회에도대소의사건이뒤를이어이러나거니와 가뎡과부녀계에도 적지아니한 사단이이러나게됩니다 그리하야 일반사회의모든문뎨는날마다사설(社說)로시평(時評)으로론평을하여오지만은 가뎡과 부녀계에대한 문뎨는비교뎍 사소하게보힘의가 적지아니하엿슴은 매우유감으로생각하든바이외다

◇가뎡이업고야 엇더케 사회가잇슬수잇스며 부녀가 업고야 엇더케 인류가잇슬수 잇스리오 사람이라하면 남자를 련상하는동시에 녀자를 이저서는아니될것이오 사회라하면 일반으로얼키설키한 사람의 사회를생각하는동시에 반드시 가뎡이라는개데를 생각지아니하여서는 아니될것이외다 그러나 우리는도라보아 생각할때에 엇지붓그러움을금할수잇스리오!

◇우리는재래로 사람이라하면 남자만을의미하여왓고 사회라하면 가뎡이외의 사회를의미하엿슴이외다 그리하야 녀자는 사람이아니라 남자의부속물로대우하는 동시에 가뎡이라하면 곳아녀자의 텬디요대장부의 일바이아니라하야 이곳에 비로소 위텬하자는불고가사(爲天下者不顧家事)라는말을그릇리용하기까지하여왓슴니다

◇그러나 녯사람도 말하기를 수신제가이후에 치국평텬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하엿슴니다 사람이면 곳남녀의구별이업시 다가티존중하여야 될것이오 따라서 우리사회의 긔초가되는가뎡문뎨야 말로 모든사회문뎨의 근본이될것이외다 그리한후에야 비로소우리의 리상하는아름다운사회도 건설할수 잇슬것이아니오닛가 이러한 의미에잇서서 우리의『가뎡평론』도 비로소의미가잇슬줄로생각합니다

남편잇는 녀사무원에게
휴양을주기로

동경뎐보에 의하면 일본톄신청에서는 남편잇는녀사원으로 임신한경우에는 오주일동안 휴양을주기를 요구하엿다는데 조선톄신국에서는 말하되『이것은현업원 공제조합의 사업으로하야정부에 청구한듯하다, 조선에서도이것부터 이사업이 필요함을인정하고 고려하는중 당국으로서는 산부뿐만아니라 던염성이잇는 병든사람에게도 이것을시행코자한다 조선에서는 산부와그밧게 휴양할사람도 극히적음으로 다대한경비도 들지아니할러인즉곳실시하고십다 고하더라

멍텅구리 자작자급 (67) 배우연습

學藝

金剛禮讚 (三五)
白雲香徒

太上洞

◇萬瀑洞을몬저보고太上洞을나종볼이나 太上洞을몬저보고나와 萬瀑洞으로들어감이나 마찬가지니外便宜한대로할것이지마는 다만한번提醒하여야할일은할수잇기까지는太上洞探勝을쌔지마시라함입니다。『速成』과『질에집작』을조하하는現代의特徵이 金剛山구경에도들어나서 흔히 萬瀑洞으로速成科들을치르고太上洞가튼데는거의忘域에더지는 傾向이잇슴은太上洞을爲해서보담도그이의金剛山구경을爲하야 앗길일입니다

◇香爐峰과靑鶴臺의사이로萬川江의 西北源을더듬어들어가는것이太上洞이니 洞口로부터內圓通庵外지이르는동안에는別로圓通洞이라는 俗稱이잇슴니다 億萬馬力이나내는큰發動機의도는듯한 萬瀑洞水春聲을뒤로두고자칫하면밋그러질듯한돌비탈을더위잡아올라가면 바위틈을가로건너노흔쪽나무다리가 한아는한아보담 더우리를서슬잇는泉石美로당긔여들임니다

◇맨몬저奇快를부르짓게하는것이靑龍潭임니다 넙적한바위위로흘러가는無味하다는드시연방물을쌔깁양으로여러번애를쓰다가 마츰내낭쩌러지를맛나는쌍이 큰돌을左右로빗킨쏘개를이 파야맛보이지안는갸륵한소가되여 쪽밋보담더 파란물을담고가지고잇는것임니다 싸게시작하야 딥으러진것이기다마하매 다른瀑보담도『색란되』의滋라하고십습니다

◇덥허 노코神龍의窟宅인듯한龍谷潭과 瀑보담도瀑布瀑布보담도岩石이더조하보이는龍象潭과 또龍湫와또九龍淵이가위層層의奇絶이오曲曲의壯觀입니다 알른돌만아니라쌔힌돌 몸부림하는물뿐아니라가만히누엇는돌 이것들이 생각나는대로제멋을부렷는데萬象늑인동것붐으로몸들이지아니하면말지아니하는새파란樹葉林이 안윽하게그우를덥흔太古的靜寂과處女的蘊藉는진실로金剛山에서도 第一입니다 高山에平野味 石潤에植土味를兼한太上洞은과연또一種特殊한境界입니다

◇洞口에서한十里 이洞의折半쯤되는곳에內圓通庵이잇스니 外山에잇는圓寂의一庵과區別하기爲하야內字를갓씨워부름니다 世祖大王이入山하섯슬째여긔서 百日祈禱를드리신因緣도잇고하야 一庵子일법하야도格式과威勢가오래山中에번쐿이더니 시방은그앗가운집이『갈이店』으로씨우는셈입니다

◇그러나庵에서내다보는奇壯한山觀은시방도무른비와갓슴니다 內山의모든條轡들이새단장새班列로낫낫치現身하는것이舞譜의그것하고가튼듯아주다른 又一大韻幅임니다 歇惺樓의그것은 北靈가튼데 圓通庵의展望은南靈다하면얼마쯤形容이될듯도하나 더適切하게말하자면 마찬가지金剛全山을一覽하는데도 前者는텬생金剛山스러움이 눈에거칠지마는 後者는金剛山이지마는金剛山티가훌떡버서진 一種特別한무드럽고따뜻하고폭신폭신한맛으로써새로연金剛山한아를보여주는것입니다 金剛山을劍戟가튼石角의무덕이로만알든이는여긔와서十二峰巫山을萬二千으로로는인媚嫵絶等한金剛의文雅的一面에驚異의눈을부르뜨지아니치못할것입니다

新設된 高麗映畫製作所

朴晶鉉 李慶瑄 李龜永 李弼雨 闞巖 五氏의發起로市內薰井洞四六番地에『高麗映畫製作所』를새로히創設하엿다는데 同所의처음事業은映畫劇作의販賣興行以外에 外國映畫直輸入等이라하며 新事業으로現代家庭悲劇小說『雙玉淚』를 來九日부터撮影을始하야 오는不日完成되리라하며 出演할人物은優秀한技術者를選擇하엿는바 그中에는日本帝國키네마及東那會社에서多年專屬俳優로잇던金澤潤君과土月會에서人氣를끌던趙天星君과諸氏라하며 撮影技師는發起人中一人으로 일죽團成社에서『薔花紅蓮傳』을박어 그일홈을어든李弼雨君이라고

◇新刊紹介◇

◇靑年(八月號) 大洪水와漢江沿岸一帶 자고자하는眞人宗敎生活과愛의精神 丁抹의農村等多載 發行所 京城府鍾路通二丁目朝鮮基督靑年會內 靑年雜誌社(振替京城一〇三八〇) 定價拾錢

청개고리

여러분은 비오는날 청개고리 우는 소리를 드르섯게지오 비만오면 청개고리가 왜 그러케 설게우는지 아르십니까 녜ㅅ적에 청개고리가 심청이 고약하여서 저의 어머니 말슴을 도모지 안듯더랍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가 하라는 조흔일은 하나도 하지안코 하지말라는 낫분짓만 작고하여서 언제든지 어머니에게 걱정을 드럿슴니다 하로는 청개고리 어머니가 죽을때가 되여서 청개고리를 보고 하는말이『내가죽거든 나를 물가에도 뭇지말고 언덕에도 뭇지말고 산꼭닥이 마른짱에 무더다오』하고 몃칠후에 청개고리 어머니는 죽엇슴니다 그랫더니 심청사나운 청개고리는 도라가신 어머니 말슴대로 하지안코 일부러 물이질컥질컥 하는 물가 진흙속에 어머니를 뭇고 마럿슴니다 그러나、어머니를 일허버린 쓸쓸한 청개고리는 그후 철이 날수록 어머니 생각을 하게되고 마음도 차차 착하게 되여 조흔이가 되엿슴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날이면 물가에무든 어머니를 생각하고『아이고 우리어머니 물에 써나려가겟네』하면서 비가 그칠때까지 작고작고 울기만 한담니다

落花 (락화)
봄바람 번역

一七四

로선생이 말한바와가티 홍운삼이를 죽인것은 죽일래서그리된것이아니오 전혀 과실이며또는홍운삼이가 먼저 대들기때문에 그러케된것이낫가 아모리죄가중하다하더라도 사형은되지안을것이다 유긔도형(有期徒刑)가튼것으로 넉넉할지도 몰은다 부장도또한 이러케 생각하고즉시재판장을 차저가서 자세한 사연을말하고 숙자의편지를 내여보엿다 재판장도일시는 부장이 미치지나안엇나하고 의심하엿스나 마츰내는 사리에굴복하게되엿다 그러나정식으로 결뎡된재판은 용이히 취소될수가업섯다 그뿐아니라 숙자의편지로말할지라도 다만사정긔 증거는될지언정 즉접으로 증거라고는할수업섯다 또한그편지에는 다만항가라고하엿슬뿐이즉사실로 황치옥인지 아닌지 그것도미상한일이엇다

그러고또 준길이가 홍운삼이를 죽이엇다는것도 준길이는 말하기를 운삼이가먼저 덤벼들기째문에 죽일래서 그런것이아니오 우연히 그러케되엿다고 하나이말에는 한가지도 증거가업섯다 그럼으로 준길이의 사형은엇젯거나 당연한일이엇다

그러나 사형의긔한을 하로이틀 연긔하는것은 재판에는관계가업는것이오 사정을 따라서재판장이 할수잇는일임으로 오늘밤에 날이밝기전에 청소마나범어리를 잡아가지고와서 즉접으로증거가되는것을 보일째에는충분히 진력하겟다고하엿다 이로써 사형이연긔되고 안되는것은 다만로선생이 오늘밤으로증거를가지고오고 못오고 하는데에달리게된것이엇다 그럼으로부장은 즉시 경찰부로와서 시계를보며 기다리고 잇섯는데 백수와 비호는 왓스나 로선생은 도라오지안엇스며 이러구러 어느덧사형을 집행할시간은되는고로 이것저것 가슴속에는여러가지 감개한 생각을품으면서도엇절수 업시재판장、장로와가티 라로케로간 것이엇다 감옥에는 당도하엿스나 그래도혹왈수업다는 생각으로 될수잇는대로 모든일을 지체가되도록하엿스며 재판장도 그마음을헤아리고 구태나 책하지아니하엿다 그러다가 부장일행은 엇절수업시 준길의 감방문을열랴고하엿다

그러나 이째에 로선생이살과가티 달려들엇다 이에부장은증거를 어덧느냐고급히물엇다、한즉로선생은 벙어리를 잡아다가뎐옥실에 두엇다하며 또는벙어리가그후로 친절한 교육을밧기째문에 다소간 숏짓과필긔로써문답할수잇게되엇다고 대답하엿다

한즉 재판장은 벌서눈을쇠푸리며『아니 처음 그벙어리는 조금도 교육이업섯는데 넉달동안에 그토록진보할수가잇나 혹다른벙어리를 다려온것이아닌가』하고 의심을하얏다

부장은엄히서『아니 벙어리의얼굴은 나라든지 감옥관리라든지 또는 이라든지 기타경찰관들 예심판사까지 모다알으닛가 보면즉시알수잇슴니다 그러고 경찰부에구류하엿든 이주일동안나도좀 교육을식혀보앗는데 그째에도 의외로진보가 속한것가탓슴니다』

재판장『그러면즉시 뎐옥실로 가봅시다』

로선생은 즐거운듯이『그러케하여주십시오』

이리하야일동은 뎐옥실로 갓다 벙어리는사쎄그니의 장로와가티잇섯스나 일동은 장로에게는 눈도떠보지안엇스며 부장은한번보고는 즉시『이것입니다 이것이야 확실히이벙어리입니다』하고부르지젓다

재판장은 약간고개를 쓰덕쓰덕한후에 뎐옥의귀에 입을대히고『사형수김준길을 이리다려오소 몰녀히대면을식혀보게』하고속살거렷다

이말소리는 뎐옥외에는 아모도못들엇스나 부장과 로선생은 이것을짐작하고 찬성한다는듯이 자못만족한양으로 눈을끔벅어렷다

뎐옥이나간후에 재판장은 비로소 사쎄그니의장로가 그방에잇는것을보고 자긔가 다리고온장로를향하야『이이는 당신의구요?』하고물엇다

이러케뭇는말에 비로소 장로는장로를보고『아아 이게웬일이오?』

사쎄그니의장로도『야아 뜻밧긔이런데서』

이모양으로 장로와장로가 반겨하는것도 또한 신긔한일이엇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廿三日 正午 七八、六
◇比較 廿二日 最高 九一、六
◇日出前五時五六 晝間一三時一九
◇日入後七時一五 夜間一〇時四一
◇二十四日은 處暑

品質本位
花王石鹼 (화왕비누)
至純 至廉 至効
이세가지가 모다잇슴니다

花王石鹼
—光榮—
帝國陸海軍 鐵道省 東京帝國大學醫學部 京都帝國大學醫學部 九州帝國大學醫學部 東北帝國大學醫學部 全國各醫科大學
陸軍各師團聯大隊 慶應義塾大學醫學部 陸軍各衛戍病院 各海軍病院 日本赤十字社病院 南滿洲鐵道會社病院 各府縣立病院 御用

製造元 東京 長瀨商會 ● 長瀨商會大阪倉庫事務所 大阪市南久太郎町二

專賣局員橫暴로 德山은廢洞地境
연초만시어서생명을잇다가 모다쌔앗아버린바살수가업다

장성군삼계면 덕산리(長城郡森溪面德山里)는주위에 산이둘고 골이깁허서논밧으로업고종래부터연초(煙草)농작을유일한업으로이에생명을걸고담배가어서잘아나기만몰을쥐여먹고기다리든터인데수년전에광주(光州)전매국(專賣局)으로 부터일본자랍조선사람석거 소위출장을 나와서 덕산리 주민들의유일한생명인 연초를 모조리쏩아 바려 그부근산은자산(紫山)을만들엇다는데 그네들의권리를너무무권매(專賣)하는것이아 말로 수를헤일일수입을여니와 사창리신우보(社倉里申右甫)를 엇지놉시 따려든사 현장에서 괴절한일까지 잇섯다하며 이로부터 약사십호되는 이암(耳岩)촌락은 할수업시러가 비일디경이ㄴ고 일반은 매우공포중에잇다더라(장성)

留學生巡講 中止、檢東
순강은부득이 중지되고말엇다

해주류학생 친목회(海州留學生親睦會)에서는 하기휴학으로고향에도라온것을 괴회로 농촌순강(農村巡講)을하기로하엿다함은괴보한 와 갓거니와 그중서선대원(西鮮隊員)본지국장리인수(李仁秀) 동경청산학원(東京青山學院) 학생조수증(趙壽增)량군은지난십이일해주(海州)를출발하야옹진(甕津)강령(康翎)취야(翠野)리목(梨木)등디에서강연을한결과가는곳마다 대성황을 일우어청중에게만흔늣김을주며 다방 농촌계발에다대한 도음을주고 지난십구일에 무사히도라왓는데 그중 조수증군은 리목에서 강연을할때에『동양척식회사에대항하자』『자유를 구금치자는발음하엿ㅅ하야 림석하얏든경관은 중지를 명하는동시에 일건서류를 해주경찰서로보내엿슴으로

동서에서 는 이십일 네 조수증군을 붓들어장시간의 심문이잇슨후불시에겨우마처엿는데조군은그이튼날니시불리여드려가취조를밧고 구금불구속(不拘束)으로료사를밧는중인데료군이심문(訊問)을바듬에본보해주 지국장리인수씨는괴자(記者)의책임으로엇지되겟과를알기위하야 동서고등계(高等係)에 드려가서일건김첨(金喆)상뎜에대한『두바시간』에대하야

이약이가 잇슨후 군산(郡山)부장은잡어 중이닛가나가라 항으로 리언수씨는『그리며소를이안흔본에 오래동안 심문할필요는 업는것이아니냐』고말하면서 나오라함에 군산부장은『필요?필요가업서?』하면서 리인수씨를 다리고 문밧그로나와서 그후리씨는 드듸여 류치(留置)되얏슴으로이에대하야리유를 무른즉 식목해주경찰서상(海州警察署長)은말하되『비밀히십오동안임으로

멧번이나 퇴거(退去)를 요구하엿스나리군은승낙하지아니함으로그의 소행은여괴에 해당(刑法百三十條)를보이며서 함으로류치하엿다』하매괴자는다시그러면 이번순회강연(巡講)에는하등관계가업느냐고무름으로『순강중 매우불온한말을하엿스닛가혹은그사건까지겹처서검사국(檢事局)까지갈는지도모르겟다』고우스면서말하얏는데여사예뎡디이든 연안(延安)청단(青丹)기타는 부득이중지(中止)되엿다더라(해주)

廣州九川面 水災同胞의困境
女子와小兒、白沙場에露宿
장정은각처로류리하야가고 로약소유만남어서울고잇다
本社에서간衣服을分給

본보에여러번보도한바어니와광주군구천면압사리풍납리(廣州郡九川面岩寺里風納里) 리재민들은 지난번홍수에 가장집물을다떼여버리고 오늘까지 달포동안을모숙생활로겨우목숨반살어갓는데 집업는것은고사하고 데일에먹을것이업서죽음디경이중로동을하야 생명을 보존하자하나 로동할곳도업고 하는수업서부모처자가 손길을잡고 하늘을우러러통곡하다가서로리별하고각처로 류리하야갓다는데 남자는장정방면으로만히간듯하며다만 그곳에남어잇는이는 녀자와아이들뿐인데 주림에 못견듸여백사장에즐비하게누어잇는참상은참아눈으로볼수업다하며이녀자와아이들은 로동도 할수업고장차엇지하면살어갈지압길이망연하다더라

二百餘件의 衣服分給
감격에늣기엇다

본사로부터 여러번 송파(松坡)리재민에게 구제를계속하야 오든중 또이번에도의복(衣服) 이백사십여벌을 내여보냇슴으로본보송파지국 서는 일반 리재민에게 일건식난호어준바 일반은감격함을마지아니하더라(송파)

白晝狼害
어린아이를물어다죽여

지난십륙일 오전십일시경에 평북귀성군방현면 청송동(平北龜城郡方峴面靑松洞)에 며나제승량이가 나타나서동리리성문(李成文)의아들순길(順吉)(七)을물어다가 산중 노코 발 만잘느고먹지는 아니한바 그부노네는사방으로 찻든중시테는 요행이차젓는데 원만유아를 가진가정에서는 크게근심을하며 아이들을단속한다더라(귀성)

面長이無理毆打
경찰은고소를밧지안코설유한다

지난십오일경에 안성군 일죽면죽림리(安城郡一竹面竹林里)에사는 량긔환(梁冀煥)은 동면직원(同面職員)에게 구타(毆打)를당하고 소관경찰관주재소에고소를 하엿다는데 그자세한내외을듯건대 진긔 량긔환은리천군 대월면 대포리 (利川郡大月面大浦里)홍긔표(洪基杓)의소유재산을 관리 여 오든중한년춘긔 묘목대금(苗木代金)을납부하지 못하엿슴으로 동군직원한모(郡職員韓某)와면서긔김봉제(面書記金鳳濟)가출장하야묘목대금을 달라는 동시에피차간에 불평한 언쟁이잇슨후이튼날 십오일에 인장(印章)을떼동하고 오라는 면소환(面召喚)에 응하야 면소에 갓드니 동면장리유진(面長李裕鎭)은뚱지은나이먼멋살이냐하며 엽헤 잇든단장(短杖)으로 무수히 란타한후젊은놈에게좀마저보라고하며란타함으로량긔환은조관죽산주재소에고소하엿더니경찰은 소를기각(棄却)하고도리여경잔을하야 내여보냇다는데 량긔환은억울한 매를맛고 호소할곳이업승을 분개 야 다시수원검사국(水原檢事局)에호소한다더라(안성)

江陵舌禍事件 正式裁判
오일구류불복 리광순씨의 ㅎ관청구

지난십오일밤 강릉불교포교당(江陵佛敎布敎堂)안에개최된강릉재외류학생련합친목회(江陵在外留學生聯合親睦會) 주최인류학생토론회는예뎡과가티당일밤팔시반경에최위진씨의사회로 열리엇는데 문데는『우리생활의급무가 도시에잇느냐 농촌에잇느냐』는연뎨로각연사의

열변을토 하야만장청중의박수갈채도 대성황을 일우엇는바 그때 부편(都市便) 리광순(李光俊)씨가등단하야 날변을토해오다『조검 네들어가사회주의운동과 정와운동을 모는 사상계발이도시중심으로부터이ㄴ난다는등으로 역사덕 설명 을한바림석중인 아모감각업시 드럿다그며데림장 엿는홍형사(洪刑事)는그쎄에완전한뭐괴도하지안엇던바 그것이전화(轉化) 사상을선전 하엿다는구실로십칠일량일을취됴하고

구류오일 에처한바 리광준씨는 무리한언도에는 순종할수업다하야 정식재판을 지난이십일 로 데괴하엿 다는데일반사회의 여론은이상도 하고괴이도 한뎡이반흔하 흥미잇게경찰의태도를 주목하는중이며 그날밤에 리씨이상으로 로줄덕의말한이도 잇스나 특히리씨만을가혹히함니이상하며리씨는현재경성연희 전문학교문과 이학년(京城延禧專門學校文科二學年)에재학중 바 재관괴일은 아직미뎡이라더 나(강릉)

普光學校의曙光
昇格運動을開始한다
위원、써 지선정하야착착진행

원산부상동에잇는보광학교(元山府上洞保光學校)는 이래수십년간에만흔인재(人材)를양성하야왓스나 중등정도의 잡종학교(中等程度) 임으로상당한교육을주지못하얏스며 따라서 고등학문(高等學校)을연구하는계급을이루기 어려웟섯다 그럼으로이것을항상유감으로생각하든그학교경영자(經營者)인『캐나다』장로교미순회에서는 금년 여름선교사회의(宣敎師會議)에서

여러가지 방면으로연구한결과 자긔들교회의 형편으로는 보광학교를승격(昇格)할수업스나 그대로유지(維持)하자면과거의공로보다현재의비난이만흘것을 각오하야 자긔들교회보다 재정여유(財政餘裕)가 만히잇는당디남감리교회(南監理敎會)에위임경영(委任經營)으로고보로승격하는것이무엇보다양책이라

생각하고 매년에사천원경상비보조와 현재 보광학교의건물전부(建物全部)를 낫감리교회에 양도(讓渡)하기로 결뎡한바 두편교회에서 각각위원세사람식을 선임하야 보광학교수수(保光學校授受)의요임(要任)에당케하엿다는데 이소문을들은 원산사회에서는 우리의자식을 우리가직접가르칠만한 교육긔관을 만들지못한 아쎄에주(寶仗)가 밧구인 멀고먼ㅣ형데들의

경영으로 우리원산에도고등보통학교를설립케된다하면피안와(彼岸火)처럼볼수업나하야 본월이십일일 하오팔시원산청년회관에서 원산청년회 원산긔독청년회 두단데의주최로 일반사회의 중요인물을 초대하야보광학교승격에대한경로(經路)를 설명하엿는데 당석에참예한오십여인사는

이구동성 으로보광학교승격후원회(保光學校昇格後援會)를조직하야 좌긔구인을교섭위원으로 선뎡하고 일체사항을그위원에게 일임하엿다는데 교섭위원은 이십이일 하오팔시에명사십리(明沙十里)에권왕하야남감리 장로교두단데에 구례거협의를 진행하기로하엿다더라

交涉委員 趙基周 張冕齡 南忠熙 崔秀崧 洪淳國 金利鉉 車亨恩 盧秉德 趙鍾九 (원산)

낙시질갓다가 싸저죽어
구십로모가가련

인천(仁川)부금곡리(金谷里)이십일번디제십호방도관(方道寬)(晝)은 지나간 십륙일아츰에우각리(牛角里)이십륙번디에사는고주뎔(高周鐵)과 가티부천(富川)군부내면(富內面)리모(李某)의방죽에낙시질을하러갓섯는데그날오후한시경에참혹히물에빠저죽엇다한다방씨는당년오십삼세로구십세나된로모(老母)가잇서 엇지할줄을모르고 문곡하는 비참한그광경은 눈으로참아볼수업다더라(인천)

子에게被打하고 自筆告訴
원인은벼멧섬 경찰은설유하야방송

장성군삼ㅅ면 덕산리홍종렬(長城郡森溪面德山里洪鍾轍)(六三)은자긔의 친아들 순학(淳鶴)에게몹시 구타를당하고 한문과조선문(漢文朝鮮文)을석거가며자필(自筆)로소관주재소에고소를데긔하엿다는데 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긔괴홍렬이는 약칠팔백석을 밧는상당한 재산가로그아들순학이가벼(租)몃섬을청구한바 주지안코 서 승강 를하다가결국 부자간에 어울려커서서로격투를하다가 순학이가종렬의가슴을 발길로차서 상금까지 괴동 임의로 못하는바 난십칠일 건긔와가티 고소를데긔하엿다는데 지난 이십일에순학이는 그면주재소에 불려가서설유만을당하고 돌아갓다더라(장성)

商業失敗로 물에싸저자살

황해도신천군 로월면정월리(黃海道信川郡芦月面亭月里)박승학(朴承學)(三三)은지난십구일오전팔시경에 동리 구포(溝浦)에서 투신자살을하엿다는데 원긔은재산가로서수년내에상업에실패를당하고아조곤궁에싸젓슴으로세상을비관함이라더라(신천)

价川水害와 郡當局을非難!
一個人의企業을擁護하야 數萬圓損害와人命을犧牲

平南价川郡价川江은夏期를當하면洪水의汎濫으로年年 附近農作物의被害가有하던中今春에同郡中南面里谷里金星弼가自己의土地를灌漑키爲하야 价川郡으로부터中西面으로通行하는道路를變更하며河川敷地를任意使用하야防築한堤堰이河川幅中(長七十間高六尺)에介入하엿슴으로其對岸과下流에在한土地家屋의利害關係住民은水害危險을念慮하야 郡廳에

禁止의 願을提出하얏스나如何한措處가無함으로住民等은六七回나陳情하야當局者에게嚴하라迫促하라도損害賠償을請求하라는等無理한言辭로態度가冷靜함으로住民은更히所管警察署에呼訴한즉郡廳과協議處分하겟다한後郡廳과協議한즉郡當局者의言이此事件은企業者의損害가多大하니待秋하야原狀回復을식혀주겟다한다하야一般住民는彷徨呼歎하던中本月十一日에果然洪水가汎濫하야數十町(十九日耕)의田畓나三名의生命外지損失하며五十六戶의浸水를當하얏雖民은抑鬱과

悲痛을 不禁한다는데一個人의企業者를爲하야 數萬圓損害와生命까지奪케하는郡行政을一般이非難하며被害者代表李瑞熙氏는損害를請求하기爲하야方今安州에滯在中이고金星弼는二十日科料에處하얏다더라(价川)

榮州青年俱樂部創立
學友親睦會를變更하야

慶北榮州學友親睦會는創立以來五個星霜을經過하도록何等事業을實施치못하야遺憾이든바는會의內容과外部를大刷新할必要가잇다고하야去八月十七日下午二時에開催된第七回定期總會席上에서滿場一致로會名을榮州青年俱樂部로變更하는同時에綱領과規則을全部改正하고卽席에서創 總會를開催하야綱領規則起草委員과任員을選擧한後同七時半에無事閉會하얏다더當選된委員及任員은如左하더라

◇規則綱領起草委員 權泰中 金泰斗 權內極 權泰然

◇任員 部長張鴻德 總務權泰中 庶務部金泰斗 財務部朴長緒 議事員全泉鎬 羅彩權 家結 朴勝瑚 權內極 李鍾淑 宋貞鎭 盧基夏 金壽元 李學恩 韓事權 寧鉉 金應基 以上(榮州)

江華中央青年 仁川에서委員會

江華中央靑年會에서는去八月二十二日正午十二時十八分에仁川內里東一旅館內에서第二十四回委員會를하고左記事項을議決하얏다더라

一、本月二十七日에講演會開催件

一、在京江華學生親睦會主催의各團體聯合討論會에參加演士는柳寅烈、康興錫兩氏로選定

(仁川)

平北敎員 檢定試驗
第二種과第三種
來月廿日부터願書接受

平安北道에서小學校의第二種及第三種敎員檢定試驗을來十月末日에施行할터인데願書는九月二十日外지滿廳에提出할것이며試驗科目은第二種은修身、日語、朝鮮語及漢文(日語를常用치안는者에게限함)歷史、地理、算術、理科、及家事、圖畫、實業音樂、手工、體操、裁縫等이며第三種은修身、日語、敎育、朝鮮語及漢文、歷史、地理、算術理科、體操、圖畫、唱歌、實業裁縫等인데實業은農商業間에受驗者는其一을擇할수잇스며但實業은男子에限하고家事並裁縫은女子에限하야 한다는 試驗의詳細한것은府郡廳에就하야問합이便할듯하다더라(義州)

完成을告한 廣梁灣幼稚園
新築落成內容充實

平南龍岡郡廣梁灣에는完全한幼年敎育機關이無하야 一般은매우遺憾으로생각하든바同里有力人士李弼周徐基禮氏外某某人士는지난三月에幼稚園設立期成會를組織하고苦熱酷炎을冒하고銳意實行에努力한結果數日前外지에半洋式園舍가遺憾업시完成되여지난二十一日午後九時에는同新築園舍內에서同年有志全部를招待하야盛大한落成式을擧行하엿다하며 保姆는 斯界의 多年經驗이잇는鄭南嫻氏를聘하야任하얏스며 將來가장充實하게되엿다는데 當日選定된同園任員은左記와如하다더라

園長李弼周 總務徐基禮 財務 崔應洛 評議員尹熙弘 李光榮 金義鉉 金一衡 吳寶燮 鄭雨周 趙潤洪(南浦)

電光이玲瓏한 晉州矗石樓
鄭洪兩氏의美擧

晉州라하면天下에일흠눕흔矗石樓를聯想할것이며矗石樓라하면다시그ㅣ樓下에만흔歷史의秘密을감춘南江의流水 한결가튼물결가운데날근風彩를그대로가진千古에有名한妓論介의祠堂을回憶하고壬辰의歷史를記憶하는우리로하야금懷舊의淚涙가滂沱할것이며消磨될수업는이말할가운대우리의神聖에無限한刺戟을밧게된다이에無比한活訓을주는勝古蹟의雄姿를近代에至하야果然엇더한現狀에잇서왓는가!

日韓合併 이되기前外지는本郡은勿論他道外지라도各有志가晉陽契라는會를組織하야六月晦日이되면烈論介의祭奠을獻하며其他各般의修理保管을하야오다가日韓合併以後로는當局에서本晉陽契에干涉을始하야이에 못견듸여마츰내 同晉陽契解散을命令함과同時에不少한契財外지當局의押收를當함으로부터歷史的記念과祖上의生命을發揮하던矗石樓도드듸여威嚴을일케되며光彩를빗내지못하게되야以來二十有星霜에祭奠치못함은

勿論頹落 과退色은참아形言키어려운現狀일뿐더러樓下에는共同便所로化하얏고樓上大堂에는정을갓지싸커잇슴으로누구나 놋잇는 사람이 보다고 하면 고압은늣김이가슴ㅣ사여시아니치못할뿐더러더옥정毫도각ㅣ싸커잇승으로開山의發樓가至極이危殆함을본 他ㅣ有志 鄭洪兩氏가이를慨歎하야 萬一의助가될가하여矗石樓以外 祠堂과指水門의三處에不少한金錢을犧牲하고合五十餘個의電燈을 架하야 詩人騷客에게만흔便宜를 주으로 外一般人士의만흔 稱이잇다더라(晉州)

群山에서 奸商取締
不正한小賣米商이多數

米價의昂騰에따라自然小賣中에는不正行爲를하는者가나타나는것은何處를勿論하고만흔바이나群山에잇서서도在庫米의減少를따라 價는昂하고一等白米는三十錢이란高價인데一部小賣商間에는一等米에二三等米를混入하야販賣하는者가잇다는데其中에는不正商人도잇는것을알아當局에서는이方面에눈을번드키고잇다더라(群山)

晉州共進會 協贊會組織

晉州에서來十一月二十日부터同二十四日外지五日間豫定으로一府十一郡의聯合重要物産共進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이에對하여同共進會를協贊하며觀覽者의便宜를圖키爲하야去十八日午後一時에當地多數有力者가本郡廳에會合하야晉州郡外一府十一郡聯合重要物産共進會協贊會를組織하얏다는데會員은四種으로分하야資格은金三百圓醸出者若干、員金五十圓醸出者特別會員金十圓醸出者普通會員金三圓以上醸出者贊助會員으로하야會長은本面長長濱三郞氏로하고副會長以下他任員은追後選定키로하얏다더라(晉州)

地方運動競技
海星軍勝
本報高靈支局主催 嶺南庭球經過

本社高靈支局主催와當地五個團體의後援으로열린嶺南庭球大會는第一回의豫選戰을마치고十七日正午外지三回의豫選을마친後午後三時半에決勝ㅣ되엿는바優勝은大邱海星軍에게歸하엿다

蹴球는陜川勝
第三日의經過

十八日午後三時半 蹴球大會를始作한바高靈軍은選手故障으로棄權하고陜川軍과決戰할새約一時間三十分만에閉幕된바成績은同點이고(일대일)三對一로陜川軍이優勝을어덧는데優勝旗及賞式이잇서 盛況裡에閉會되얏더라

平安庭球大會

三陽在外留學生學友會主催로去十八日正午부터泰川內公立普通學校코ー트에서第一回平安庭球大會를會長裵日麟氏開會宣言으로열린바優勝의權은靑年團에歸한바決勝戰績은如下

決勝戰 靑年團 雲山軍
◎金利祐 崔錫澤 ×李東相 李京順
×吉發伯 裴 宣 ×韓 龍 秦 鳳
○金體 朴應翊 ×○文王生 文仁俊
(泰川)

全蔚珍庭球 個人選手權會

江原道蔚珍郡에서는當地留學生으로組織된學友俱樂部主催와本報蔚珍支局後援으로지난十六日當地公立普通學校 코ー트에서全蔚珍庭球個人選手權大會를열엇는데地方靑年의老鍊한手腕과留學生의新銳의기槪는사못山海大氣를撼動하엿스며優勝은李 周 李成 組에歸하얏고二等은張在錫 朴鍾震組ㅣ라더라(蔚珍)

順天軍優勝

個人蹴球가곳난後翌十七日부터十八日外지蹴球大會를열엇는데參加團은都合十個團인바勝敗가五相反覆되든中마지막에順天靑年團對光陽蹴虎團이열리어滿堂의人氣는極度로緊張하엿고南方의應援歡呼는자못白熱化한바結局三對一로順天軍이優勝을占하다(順天)

順天에열린 南朝鮮運動會
庭球는日人勝

全南順天靑年會主催와東亞、時代、本報三支局後援下로열린南朝鮮運動大會의第二日인十五日에個人庭球戰을여니光陽、高興麗水、同福、河東、谷城、順天의三十組가參加하엿스며翌十六日外지慘烈苦鬪한結果、光陽으로부터參加한細田、小橋組가優勝의月桂冠을得한바그는京城師範學校에서有數한選手를가진바이라며優勝旗及銀盃等各種賞品을授與하엿다는바成績은다음과갓더라

光陽 細田 小橋 〔四ー三〕 金堯棲 東萊
順天 金京錫 趙鍾河 〔四ー三〕 李泰然 趙官用
決勝戰
○小橋 細田 〔四ー二〕 金京錫 趙鍾河

江陵庭球盛況

江陵在京留學生聯合親睦會主催인全江陵庭球大會는去十八日下午一時부터江陵警察署코ー트에서開會된바江陵靑年과留學生의對抗이잇섯는데그날은또한雨天임으로써豫選은中止하고靑年側과學生側의對抗戰이잇슨바靑年側이意外로慘敗를當하게되엿는데靑年側에서는白奉石、姜大膺組가强組이어서學生側의林組나慘敗를식히고氣盡되야學生側崔敦榮、李容燮組에게惜敗되고決勝戰은學生對學生側崔敦榮、李容燮組對權桓圭、韓龍龜組의決勝戰에崔敦榮組는아깝게措敗되야權桓圭組가優勝하얏더라(江陵)

紛糾를내인 北青蹴球會
優勝은六浛團

北青青友獎學會에서는十七日에第一回蹴球大會를東門外公設運動場에서열고十八兩日에第一二回豫選、지無事히進行되엿스며多少紛爭이잇섯스나最後決勝戰에高普團對六浛團에이르러「론니ㅣ」一點으로六浛團이優勝을하게되바高普團의異議가잇서不祥事가잇서場內가騷亂하야優勝旗授與式을行하지못하고主審은病院에入院하야應急治療을는中이더라(北青)

醴泉事件과 各地에서續續出動
忠南代表會議에서勇士를派送

醴泉襲擊事件으로忠南各分社의各代表者五十名이忠南支社에雲集하야近日總出動할目的으로準備中이라함은數次新聞에報道한바와갓거니와今般本部公文을接하고去十九日午後十時頃에南忠支社事務所內에서會議를開催한고左와如히決議하얏더라

決議案

一、忠南支社醴泉特派員金萬業氏의醴泉衡平分社의襲擊眞相報告

一、全朝鮮各支分社代表中勇將猛士를總出動할事

一、本部維持方針에對하야特別各自損出하기로할事

一、本月二十二日禮山衡平分社內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圓滿한理解를得할事

十四團體奮起
群山에서

慶北醴泉邑民이醴泉衡平分社를襲擊以後多數、取締當者、衡平社員들은아니다그곳에잇는衡平社員들은放逐을當하며四方으로흐러지게되며全朝鮮各地에잇는衡平社員은勿論一般社會의重大한社會問題로 가되엿슴으로群山에서는 가되엿슴으로群山에서山青年聯盟를비롯하야思想團體青年團體勞働團體에서는이에對한對策을 강구하고 群山靑年會館에서十四個團體代表者가會合하야 君의司會下에左記事項을 行하얏는바出席團體와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出席團體
群山青年會 民衆運動社 群山勞働青年會 群山衡平青年會 群山衡平分社 群山勞働會 群山鐵工勞働會 群山精米共働親睦組 群新勞働組合 人力車夫聯合親睦會 理髮職工親睦會 勞働共濟會 以上十四組合 ?風俱樂部 個團體

◇決議事項

一、調査委員을選定하야該事件의眞狀을調査할것
調査委員 金昌洙
同 金鎭

(가)調査方式은調査委員에게一任할것

(나)調査期間은九月五日外지

二、調査報告演說會開催件

(가)會集方式은各團體會員을中心으로하야一般民衆을集케할것

(나)時日場所는同期會合으로미룰것

三、無產大衆解放運動과衡平運動과는不可分的關係가잇는것을一般民衆에게理解하도록宣傳할것

(가)宣傳方式은講演會를開催할것

(가)會集方式은 各團體休會를中心으로하야全部一場所에會集케할것

四、今般衝突의裡面에煽動者를調査하야積極的으로懲戒할것

(群山)

安城에서 先發隊와應援隊

慶北醴泉地方에서農民千餘名이衡平分社를襲擊한事件에對하야安城衡平分社에서도去十九日에幹部會를開催하고決議한後先發隊를現場에派遣하게하고萬一不意한때는應援隊를보내기로卽席에서十餘人社員으로應援隊를組織한後에先發隊는二人을選擧하야現場에보내엿다는데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安城)

張成萬 李鍾淳

洪原에서 忠告文

咸南洪原青年會에는同幹部會를지난二十一日午後九時부터同會事務室內에서開催하고左記事項에決議하얏다더라

一、九月五日少年雄辯大會를同六日青年雄辯大會를開催할것

二、全朝鮮水災救濟金을各戶에配當한件에對하야極貧者에게는免除하야달라고郡當局에交涉할것

三、今般醴泉衡平分社事件에對하야襲擊한農民에게忠告文을發送하여其扇動者를調査하야社會的으로制裁할것(洪原)

小作要求에 應從하고
萬城輕鐵工事復舊

明治礦業株式會社安州炭坑에서起工한輕便鐵道工事가小作人抗拒로中止되엿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 安州炭坑李翰錫과小作人代表安學豐兩氏가決議한結果小作人에게對하야實費價格에二割을小作人에게提供키로決定되여工事는如前히復舊되엿는데小作人은小作料보다는만히收入이되나來年부터小作할土地가無하야只今부터漫慮中이라더라(萬城)

光興親睦會
總會에서內容革新

忠南論山郡城東面院北里에잇는光興親睦會에서는去十六日午後一時부터同會第一回定期總會를開催하얏는데例의依例와經過報告를마치고討議事項에드러가서會長韓虎烈氏로부터會制變更에對하야從來의會長制를委員制로革新하자고提言하매滿場은一致可決되야卽席에서執行委員七人을選擧하고議事를進行하얏는데就中少年部設置의件과水災救濟의件에對하야는其責任을委員會에一任하기로하고午後四時頃에無事閉會하얏는데今回被選된委員의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論山)

蘇喆永、金鍾舜、朴魯甲、趙東批、李象學、金永鎬、常務李啓赫

郡民大會
北青에서 高普建築費問題로

北青郡內有志諸氏는高普建築費發送未拂事件으로因하야去十七日에郡民大會를北青青年會館內에서開催하야出席員이百四十七人ㅣ會集하야議題人選으로부터報告에入하야高普建築費未拂로因하야諸訟問題와執行外지當하게된事件顚末을報告하고場內는靜肅한中에本郡에서四年前에慈惠醫院基地代金으로寄付바든金八萬圓을郡廳에保管中인즉慈惠醫院도設立되지안코當局에서는該金額을還取하야이學校를設立할希望을한다는일에 移付하자고滿場ㅣ致로可決되야實行委員四人을選定하고閉會하엿다더라(北青)

洪城에 懸賞少年雄辯

來九月二十六日에

忠南洪城邑懿法少年會主催로全洪城少年少女雄辯大會를開催한다는데各團體에서多數參加하기를바란다하며詳細한事項은如左하다더라

一、申込期日은來九月五日外지

一、時日은來九月二十六日午後七時

一、申込資格은滿八歲로부터十六歲外지

一、申込金은每人前五十錢

一、賞品等數一等으로부터五等外지

一、主催洪城懿法少年會

一、後援 洪城青年會、洪城婦人會、時代、朝鮮兩支局

普校生程度 懸賞作文發表
本報長城支局主催

全南長城郡과潭陽郡을限하야本報長城支局主催로普校五六學年程度의私立公立을勿論하고第一回懸賞作文을募集하여오든바去月廿日에締切하고審査한結果左와如히當選되엿는데賞品은在籍學校長에게分配하기를依賴하엿다더라

一等 社倉公普校補習科一年 洪鍾閏
二等 月坪公普校 五年生 柳大熙
三等 社倉公普校補習科二年 高濟臣
(長城)

設立計劃中인 全州水利組合
八個所이다

全羅北道內의水利事業은其成績이매우優良하야現在八個所의水利組合의面積이三萬五千町步인데其中에三水利組合은工事中인바現下의組合長은臨益、益沃溝、扶安、古阜、赤城、東津、瑞律이며此外에도測量을終하고設立計劃中에屬한組合과面積은左와如하다더라

益山郡王宮四〇〇町步金堤郡金溝 五〇町步全州郡助村二二〇町步堅基五〇町步 二〇〇〇町步成悅一〇〇〇町步敎術等一五〇町步參禮一二〇町步(群山)

晉州第三夜學會 歌劇會開催
同情도만엇다

晉州私立第三夜學會에서는經費의困難으로因하야去十七、八兩日間當地晉州座에서歌劇大會를開催하얏다는데同情人士의氏名及金額은左記와갓다더라

姜時永 梁德見各十圓 朴泰香六圓 姜宇文 千石成各三圓 朱德明五圓 申秀卿 徐正韶 鄭又鳳 崔貞洙 金漢룡各二圓 金錫詰五圓 姜泰彥 張祥洙各一圓五十錢 鄭鳳基 無名氏 無名氏 李香國 姜守鎭 朴定任 閔致鍾 姜周軾 各一圓 姜三文一圓 金斗洪 沈文卿 姜東煥 無名氏 珍華 秋泰植 無名氏 晉州親友會 金贊元各五十錢 無名氏四十八錢 鳳洞夜學會金一封(晉州)

南浦에열린 衛生講演盛況
三大醫家의大獅子吼

旣報ㅣ鎭南浦留學生學友會主催朝鮮日報社鎭南浦支局後援의夏期特別衛生大講演會는場所를碑石里監理敎會堂으로變更(事情上)하여가지고豫定과가티지난二十一日午後八時半부터開催하엿는데定刻에朴俊燮氏의簡單한開會辭가잇슨後順序를따라三和醫院長金菁植氏의『醫命에對하야』란講演을비롯하야龍井醫院長李顯柱氏의『人生과衛生』이란講演과林醫院長林炳日氏의『疾病의探偵』이라講演等鎭南浦三大醫家總動員의大獅子吼이잇서實로空前의大盛을(衛生講演으로는)이루엇는데中間中間開閉林健舜君의바이올린獨奏는淸雅한音調와共히되든듯한場內를淸冷케하엿스며最後로林炳日氏의通俗的이면서도專門的인疾病探偵의妙方은一般聽衆을熱狂케하야마지아니하엿다場內는처음부터和氣가充滿한中에서拍手喝采의大盛况으로마치니때는十一時頃이엿다더라(鎭南浦)

奉化에文藝素人劇

慶北奉化靑年會의經營인私立大明學院在學生及卒業生으로組織된우리學友會主催와奉化各團體의後援으로文藝素人劇團을組織하고團長權孝燮引率下에郡內九面各洞을巡回興行할터인데興行할藝題는

一、家庭悲劇 花燭의初夜 全九幕

二、現代劇 苦悶의淚 全六幕

이라하며入場은無料이오巡回期間은八月十九日부터向二十日間이라하며出演役者는모다十二人이라더라(奉化)

『젊은니모음』會
洪原에서創立

咸南洪原郡翼面壯亭里는近百餘戶되는村落이나아즉外지젊은니싸리배홀만한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生覺、든바同里有志들의發起로去七月二十三日午後八時부터同里權中洌氏집에모히여『젊은니모음』創立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金在鎬氏司會下에서左의各部를두고同十時에閉會하얏다더라

一、智育部 二、體育部 三、藝術部(洪原)

奉化靑年任員會
重要事項을決議

慶北奉化靑年會에서는定期總會로부터一任된事項을討議키爲하야去十五日午後二時부터本會館會[illegible]役員會를開催하고會長金昌燮氏의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더라

一、巡回講演團組織의件

二、革新會巡廻後援의件

三、女子夜學設立의件

四、借與金回收件決定의件

五、郡內各公私立學校 後援의件

六、秋季大運動會 開催의件

가、榮州郡內公私立學校三十餘校學生陸上競技會

나、慶北道內에在한各團體庭球大會

七、會費徵收의件

八、年齡制限에對하야超過會員에게通知할發送의件

(奉化)

地方改良講習
仁川月尾島에서

例年과如히來月十日부터五日間仁川月尾島臨海學校에서開催될京畿道主催의地方改良講習의聽講希望者의選擇은依賴된各府郡長及各團體에通牒을發하얏다더라(仁川)

錦山留學生總會

全北錦山郡에서京城留學하는學生으로組織된錦山留學生親睦會第六回定期總會를去二十一日下午四時二十分에錦山靑年會館內에서總幹事郭海鳳君의司會로開會하고左記事項과會計報告를한後任員改選을進行하엿는데左記事項五人을選定한後에雄辯大會開催의件을決議하고閉會하니同下午六時頃이라더라

幹事丁世祚 宋煥東 鄭海仁 金炳圭 郭海鳳(錦山)

◇楊氏褒彰在邇 成興郡

三平面楊彰培氏는孝誠이至極하야附近의模範家門이라고稱頌이藉藉하든바其父親의喪을當한後三年間을山中에서侍墓를守行함에對하야該郡廳儒道振興會에서哀彰狀을給與하고三平面長李序均外面民代表者李學琉、洪性基楊海奐三氏의發起로義捐을募集하야孝子碑閣을建築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近近建築을竣工하고褒彰式을盛大히擧行하리라는데日字는未定이라더라(成興)

奉化에女子夜學會

慶北奉化靑年會에서는郡內女子教育이不振함을慨歎하야任員會를開催하고㴑議한結果會館內에서女子夜學會를設立하고大成學院敎員諸氏로敎授를擔任케하야오는二十五日부터開學하고저學生을募集中인데授業料는업다하며願書提出期는八月二十三日外지라더라(奉化)

金浦永登浦間開通

道路破損으로因하야去月十五日부터運輸休止이든金浦永登浦間自働車는近日復舊되여今月二十三日부터運轉을開始하얏다더라(金浦)

◇寸識◇

【禮里】 益山郡八條面駐在巡查某는淸潔檢查時에남의집婦人에게對하야『아이배엿군? 멧달되얏서?』한다고한다 折半語는그네의常套인지는未知커니와淸潔檢查並姙娠調查외지하는親切

◇【海州】 二十日밤열한시半頃福豊園二層에서는所謂『배뎡이굿』하는妖女와妓生을驅使하다노코當代富豪이던李某外數名이한참迷宕히거드럭거릴때巫女가鬼神을잡는다는지난데업는호드닥닥 엑키爆彈! 쥐구멍이좁으나넓으나 알고보니들멍이!아이고!후!

◇【奉化】 明湖面刀川里에잇는明湖學術講習會는前趙面長時代에設立하엿는데新任面長의敎育誠意가切實치안아발서空立學校가되고運動場에는漫作物이盛茂하엿다낫노니보기조흔신가

水災義金

深陽館之助 小黃鐵良夫 新津지는東京家庭聯賀細合吉거 吳春敬 金相根 洪鳳運 崔 俊伊谷三圓 尹學吉 吳錫楠 朴小塔 姜鎬五 李倒彩 金鳳柱 林 婦人 金生 一圓 李旭 鎔河 吳應元 高成教 尹太鉉 金京先 申